



#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제340호  
2022년 8월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www.snuaa.org

news@snuaa.org

## 절벽 타면서 삶을 배운다 ... 임소영(간호대 87) 동문의 암벽등반기



암벽등반은 '익스트림 스포츠', 이른바 극한을 추구하는 스포츠다. 인간의 한계에 도전한다고 해서 MZ세대애나 어울리는 종목이다. 50대 중반인 임 동문은 그러나 깎아지른 절벽을 로프에 의지한 채 한 발 한 발 점령한다. "진정한 실패는 도전하지 않는 겁니다." 임 동문이 바위를 타는 이유이기도 하다. <관련기사=19면>

## 각 지부 '관악연대'에 지원금 보낸다 2만달러 예산 확보, 젊은 세대 참여 격려

미주 동창회(회장 노명호 · 공대 61)가 관악연대 회원 확충과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노명호 회장은 지난 6월 25일 LA에서 열린 제 31차 평의원 회의에서 젊은 세대를 위한 활동 지원비로 2만 달러의 예산을 편성,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예산을 관악연대(80년대 이후 학번 세대)에 집중 투자해 차세대 지도자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동창회도 고령화가 빠른 템포로 진행되고 있어 세대 교체를 논의할 시점에 와 있다"며 "16대 회장단은 남은 임기 동안 관악연대를 비롯한 젊은 세대의 모임과 동호회 활동을 적

극 도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미주 동창회는 관악연대의 성장과 활동 및 소요예산 등이 담긴 프로젝트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각 지부에 발송했다.

미주 동창회는 제안서를 8월 19일까지 제출받아 이미 심사에 들어간 상태다. 예산이 제한돼 있는 만큼 지원금은 심

사 결과에 따라 선별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워싱턴 D.C. 동창회장인 박상근(법대 75) 동문은 "미주 동창회의 이번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며 "동창회의 앞날은 젊은 세대의 참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제 1회 미주 동창회장배 바둑대회 내년 6월, 평의원 회의 기간 중

제 1회 미주 동창회장배 동문 바둑대회가 내년 6월 열린다.

워싱턴 D.C. 동창회 주관으로 열리는 동문 바둑대회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대회 총무를 맡고 있

는 정용운(농생대 81) 동문은 각 지부에서 예선전을 통해 개인전과 단체전에 출전할 선수를 뽑아 본선에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선은 내년 6월 열릴 제 32차 평의원 회의 기간 중 열린다. 개최지는 아직 미정이다.

노명호 미주 동창회장은 "이번 바둑대회는 명실공히 전 지부가 참여하는 최초의 행사여서 기대가 크다"며 "앞으로

이 같은 행사를 더 많이 개최해 미주 동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다. ▲문의: 정용운(571-320-9582)

<관련기사=13면>

## 하기환(공대 66) 동문, 한상 대회장 선임



다. 대회가 해외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기환(공대 66 · 사진) 동문이 내년도 세계한상대회 대회장으로 선임됐다.

내년도 한상대회는 LA 인근의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하기환 동문은 1세대 한상 리딩 CEO로 불린다.

LA한인회장, LA한인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지낸바 있다.

세계한상대회는 재외동포 경제인과 한국의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한민족 최대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행사다.

올해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울산에서 열린다. <관련기사=3면>

My Personal Odyssey  
김정빈 교수  
관련기사 = 7면

## 미주동창회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Tel: 213-908-5586 Email: snuaausa30@gmail.com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공식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입니다. 동창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실 때는 pay to the order에 공식 풀네임 또는 약칭 SNUAA USA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 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로,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 입니다.

## 한국남 박사의 ‘희토류 이야기’ 21세기 최고의 전략자원, 첨단산업의 ‘비타민’ 등소평의 예언 적중해 중국이 시장 독점지배

미국이 지난날 석유를 통해 에너지 패권을 차지, 지금의 세계질서를 구축한 것처럼 중국은 희토류를 무기화해 패권국가가 되고자 하는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중국의 최고지도자 등소평은 1990년대 초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은 희토류가 있다” 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등소평의 예언대로 중국은 희토류 생산에 관한 한 절대강자의 위치에 올라서 있다. 1980년대 초반 해도 미국은 전세계 1위의 희토류 생산 및 수출국가였다. 그러나 불과 10년 후 미국의 희토류 지배력은 볼품없이 쪼그라 들었고 중국은 미국을 대신해 세계를 호령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10년 중국은 일본과의 영토권 분쟁(센카쿠 열도)에서 희토류를 필승카드로 꺼내들었다. 중국어선을 나포하는 등 강경입장이었던 일본은 그러나 중국이 희토류 대일수출 금지라는 극약처방을 내리자 곧바로 중국선원을 석방하며 사과하는 등 바짝 꼬리를 내렸다. 희토류가 얼마나 중요한 전략자원인지 전 세계에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 하겠다.

희토류는 어떻게 정제되고 또 산업의 어느 부문에 유용하게 쓰이는지, 또 글로벌 공급망은 어떻게 재편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원에너지 공학의 권위자인 한국남 박사가 최근 서울대 동창회 포럼에 출연, 강연한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 편집자



**한국남  
공대 57**

희토류(Rare Earth Elements)를 그대로 번역하면 희귀한 흙이란 뜻이 된다. 그런데 ‘rare’에는 ‘귀중한(valuable)’이란 의미도 담겨있다.

희토류는 주기율표의 세번째 그룹에 속해있는데 21번 스칸듐(Sc), 39번 이트륨(Y), 그리고 57~71번 까지 모두 17개 원소 그룹을 지칭한다. 스칸듐과 이트륨 외에도 란타넘(La), 세륨(Ce), 프라세오디뎴(Pr), 네오디뎴(Nd), 프로메튬(Pm), 사마륨(Sm), 유로퓸(Eu), 가돌리늄(Gd), 터븀(Tb), 디스프로슘(Dy), 홀뮴(Hf), 어븀(Er), 톨륨(Tm), 이터븀(Yb), 루테튬(Lu) 등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 많다. 하지만 생각보다 드물지는 않다. 몇몇 원소들은 텅스텐과 같은 금속보다 훨씬 풍부하게 존재한다.

희토류는 중국에 4,500만톤(메트릭 톤)이 매장돼 전세계 매장량의 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미국이 1,400만톤으로 15% 정도가 된다. 그러나 생산량만 갖고 따지면 중국이 86%나 돼 희토류에 관한 한 압도적 1위라고 할 수 있겠다.

희토류는 1980년대 까지만 해도 미국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다시피 했다. 캘리포니아의 마운틴 패스(Mountain Pass) 광산에서 생산되는 희토류가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한 것이다.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주 경계선 인근의 15번 프리웨이 선상에 위치한 이 광산은 중국이 본격적으로 희토류를 생산, 전세계에 싼값으로 공급하자 결국 문을 닫게 된다.

그 뿐이 아니다. 희토류는 정제과정에서 많은 양의 유해물질이 생산된다. 연방 환경보호청(EPA)의 엄격한 규제조치

로 광산은 생산을 중단하게 되고 희토류 패권은 중국으로 넘어가게 된다. (중국은 마운틴 패스 광산을 사들이기 위해 ‘백지수표’까지 제시했으나 의회에서 희토류를 국가전략 방위물자로 지정, 이 광산을 외국 정부나 기업에 매각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 편집자).

최근엔 외부 투자를 받아 EPA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등 광산을 재가동시키고 있으나 아직도 생산은 미미한 형편이다.

희토류는 글자 그대로 희귀한 것은 아니다. 고순도(99.99%) 제품으로 정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희귀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다.

희토류는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불

려 희토류는 헬스케어 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트륨은 간암치료에, 니오뎴은 피부암 치료제로 쓰이며, 가돌리늄은 MRI 제작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소재다.

색깔도 다 다르다. 무지개 색깔을 다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로퓸은 빛의 3원색을 표현하는데 가장 안정적 구조를 가진 물질이다. 그래서 TV 모니터 제작에 필수적인 소재로 쓰이고 있다.

희토류는 생산량의 상당부분이 영구자석으로 이용된다. 이 자석이 가진 자력이 오늘날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첨단 전자제품의 혁명을 가져왔다. 가장 대표적인 희토류인 네오디뎴 자석은 원자가 한 방

어 구리를 제련하려면 kg당 4~5달러가 필요하다. 철은 20센트에 불과하다. 그러나 희토류는 싼 것이 10~13달러, 심지어 1,250 달러까지 하는 것도 드물지 않다. 스탠뎴은 27만 달러나 소요된다(금은 4만4,000 달러).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금속도 희토류다. 원소번호 87인 프란시움은 1g 당 무려 10억 달러나 된다. 캘리포뎴은 2,500만 달러를 훔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희토류를 포함하는 광물은 240가지나 된다. 그러나 모나자이트, 바스트나사이트, 세노타임 등 세 광물에서 80~90% 가량이 나온다. 한국서도 일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경제성이 거의 없어 아직 채굴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희토류는 흙을 파쇄해 분리한 다음 황산을 넣고 고열을 가해야 얻을 수 있는 금속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들어있는 폐수가 나오는데 폐수 처리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 희토류는 ‘부르는 게 값’인 시대가 된 것이다.

앞서 얘기했듯 EPA는 폐수를 재처리해 환경오염 방지를 강력 주문하고 있으나 중국은 폐수를 거대한 구덩이를 파 그대로 방치, 원가를 크게 줄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기술 강국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EPA의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첨단기법을 개발, 중국의 독주를 방지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희토류는 중국 이외에도 베트남, 러시아, 브라질, 인도, 호주 등지에도 풍부하게 매장돼 있다.

이처럼 희토류는 문명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재활용이다. 지각에서 캐낸 ‘지하자원’을 ‘지상자원’으로 바꾸는 것이다. 한국이 대표적인 ‘지상자원’ 국가다. 분리수거를 의무화하고 있어 전국민이 희토류를 ‘마이닝’ 한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은 기술 부문에서도 세계 첨단을 달리고 있어 언젠가는 재활용한 희토류를 수출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 한국남 박사는

- ▲UC 버클리 박사학위
- ▲사우스 다코타 주립대(SDSMT) 석좌교수
- ▲미국 엔지니어링아카데미(NAE) 정회원
- ▲국내외 학술지 200여편 논문발표



캘리포니아-네바다 주 경계선 인근에 위치한 ‘마운틴 패스’ 광산. 4~5%대의 고순도 희토류가 풍부하게 매장돼 있으나 중국의 저가 공세와 환경규제 때문에 생산이 거의 중단된 상태다.

### EPA 규제로 ‘마운틴 패스’ 문닫아 한국은 재활용’으로 ‘지상자원’화

릴 정도로 필수불가결한 소재가 되고 있다. 탁월한 화학적, 전기적, 자석적, 발광적인 성질 등으로 인해 전기 자동차를 비롯 풍력발전, 태양열 발전 등에 널리 쓰인다. 특히 21세기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수적인 영구자석 제작에 꼭 필요해 응용의 범위가 매우 다채롭다.

한가지 예를 들어본다. 옛 소련의 미그 전투기는 동체를 알루미늄으로 제작해 가볍기는 했지만 강도가 약하다는 취약성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알루미늄에 희토류 금속인 스칸듐을 0.3~0.5%만 넣어도 강도가 무려 3~4배나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래서 요즘은 무기는 물론 야구 배트 등 각종 운동기구 제작에도 두루 쓰인다.

향으로 정렬되어 있어 일반 자석에 비해 11배나 높은 자력을 지니고 있다. 전자제품의 소형화와 자동차 산업을 위해선 희토류가 꼭 필요하다.

전기 자동차의 모터와 휴대폰 등 강력한 자력을 필요로 하는 첨단제품의 종류와 개체수는 늘어나는데 마땅히 희토류를 대체할 물질이 없기에 이 희귀금속이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

휴대폰을 제작하려면 모두 25개의 금속이 필요한데 이 중 희토류가 3분의 1 가량인 7개나 된다. 희토류가 없으면 21세기 문명의 최대이기라는 스마트폰은 사실상 제작이 불가능한 형편이다.

희토류는 가격이 비싸다. 정련, 곧 금속을 뽑아내기가 힘들어서 그렇다. 예를 들



LA의 세계적인 명소 할리웃 보울에서 열린 야유회에 200여 동문 및 가족들이 모여 한여름밤의 정취에 흠뻑 빠졌다. 이날 야유회는 팬데믹으로 인해 2년만에 열렸다.

## 할리웃 보울의 한여름 피크닉 200여 동문 가득 메워... 불꽃놀이로 '피날레'

한낮의 강렬한 태양이 물러나고 할리웃 보울의 산자락에 노을이 찾아들 즈음 200여 동문 및 가족들이 지난 8월 13일 야외 피크닉장을 가득 메웠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단절을 경험했기에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서로 공감하며 안부를 물었다.

“거의 2년이 지났네요. 다들 무탈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피크닉을 주관한 남가주 총동창회 박제환(문리대 75) 회장은 얼굴에 웃음이 가득 피어 올랐다.

한여름밤의 정취에 흠뻑 젖은 탓인지 팬데믹의 상처는 이미 다 아물었지 싶었다. 잔디밭에 돛자리를 펴고 앉은 동문들도 더러 있었다.

할리웃 보울에서의 ‘동문가족 야유회’는 지난 2005년부터 빠짐없이 열린 동창회의 연례잔치다.

피크닉을 준비하느라 애쓴 동문은 안혜정(생과대 77) 준비위원장. 생과대 회장이 되고 겸하고 있는 안 박사는 동문들의 애피

타이저 등 디너를 준비하느라 직장(연방 식품의약품)도 ‘땡땡이’쳤다. 식자재는 모두 ‘트레이더 조’에서 특별주문한 오개니. 와인까지 곁들인 최고급 식사였다.

안 동문이 애쓰는 모습에 이호진(간호대 74) 동문도 거듭었다. 조무상(법대 70) 동문은 밴트럭으로 음식을 나르는 등 갖은 일을 도맡아했다.

피크닉이 끝나자 동문들은 공연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구스타보 두다벨이 지휘하는 LA 필하모닉의 ‘1812년 서곡’(차이콥스키) 연주로 막이 올랐다.

USC 마칭밴드의 특별출연으로 더욱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폭죽이 터지며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덮자 여기저기서 탄성이 쏟아졌다.

김상찬(문리대 65) 전 남가주총동창회장은 “확박한 도시의 삶을 사느라 지쳤는데 모처럼 동문들과 함께 어울려 추억을 쌓았다”며 “내년에도 꼭 찾겠다”고 말했다.

## 전경배(LA) 동문 의대 동창회장 선출

전경배(의대 69·LA) 동문이 북미주의대동창회장으로 선출됐다.

전 신임회장은 “동창회의 전통과 역사를 잘 보존하고 지키며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더욱 발전하는 동창회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특히 전 회장은 “우리의 미래가 ‘그



린 프로젝트’에 달려 있다”며 “앞으로 젊은 동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그린 프로젝트’를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각 동기회를 보다 활성화해 동창회와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으로 동문 뿐만 아니

라 선배 미망인들의 참여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 모교 홈커밍데이 방문단 모집 10월16일 ... 5박6일 동해·제주 여행도

서울대 및 서울대 총동창회가 주관하는 올해 모교 홈커밍데이 행사가 오는 10월 16일 관악캠퍼스에서 동문화합 한마당 잔치로 열린다.

서울대 개교기념일에 맞춰 열리는 홈커밍데이 행사는 코비드-19 감염증 사태로 인해 지난 2년간 대면 행사로 열리지 못했다. 그러나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전세계 동문들과 연결하는 채널을 만들어 홈커밍데이 행사는 중단되지 않았다.

올해 모교는 개교 76주년을 맞는다. 주최 측은 코비드 사태가 크게 진정세를 보이면 당초 예정대로 홈커밍데이 행사를 대면으로 치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주 동창회는 전통적으로 홈커밍데이 행사에 임원진은 물론 각

지부장 및 지부 회원들이 참여해 왔다. 가장 최근인 2019년 10월에는 공식행사가 끝난 후 3박4일 일정으로 서해 및 남해 여행을 즐겼다.

노명호 미주 동창회장은 코비드 상황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일단 홈커밍데이 행사에 참여하고 마포에 있는 동창회관을 방문, 총동창회 임원진과도 소통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홈커밍데이 참석 동문들이 3박4일 일정의 여행을 떠나기 앞서 포즈를 취했다.

한편 공식행사가 끝난 후에는 동해와 강원도, 제주도를 포함한 5박6일 일정의 ‘내 나라 여행’이 준비돼 있다.

여행은 최진석(법대 64) 동문이 일정을 관리하는 등 간사역할을 맡고 있다.

▲문의: (213) 321-6428.

## 김기형 동문의 ‘美친 기부’ 평의원 회의 버스투어 ‘대납’

김기형(경영대 75·사진) 동문의 아름다운 기부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김 동문은 지난 6월 25일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에 참가한 동문 배우자들의 투어를 위해 관광버스 한 대를 대절했다. 배우자들은 말리부 비치에 소재한 게티 빌라를 비롯해 여러 명소를 둘러 모처럼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이날 경비는 버스 대여와 운전기사 일당을 포함해 1,400달러나 나왔다. 김 동



문은 본인 체크로 버스회사에 경비 일체를 지불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동창회 측은 환불해주겠다고 했으나 김 동문은 정중히 사양했다.

이번 평의원 회의 진행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김 동문은 “내게도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다.

노명호 미주 동창회장은 “김기형 동문의 선한 영향력에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고마움을 전했다.

## 세계한상대회란...

세계한상대회는 매년 10월 한민족 혈통을 가진 재외동포 경제단체들이 개최하는 모임이다. 국적을 불문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는 한민족 혈통의 비즈니스 종사자를 ‘한상’이라 부른다.

각 지역별 한인상공회의소 등 재외동포 경제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한민족 비즈니스 네트워크 컨벤션이다.

한국의 정부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이 주

관하며 첫 대회는 2002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이후 부산 등 각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됐는데 내년 처음으로 해외(LA 인근의 오렌지 카운티)에서 열린다.

한상대회의 핵심그룹은 하기환 회장을 비롯한 ‘리딩 CEO’들이다. 내년 대회에는 전세계 50여 개국에서 1,000여 명의 한상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해 한상대회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위대한 한상, 20년을 담다’라는 주제로 울산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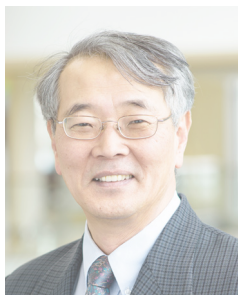
## 김병국 동문의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공학자의 '예술 투자 10년' 결실 맺어 미 대학과 주류사회에 전통문화 소개

보스턴 한미예술협회는 공학자인 김병국(공대 71) 동문의 예술애(藝術愛)가 결실을 맺어 탄생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터다. 예술협회의 발족에는 동문들의 도움도 컸다.

뭘니뭘니해도 국악을 주류사회에 소개한 것은 예술협회의 공적으로 지금도 널리 회자되고 있다. 가야금과 판소리, 승무, 사물놀이든 물론 지

난 2019년에는 '국악과 발레를 위한 콘서트'를 개최해 관심을 끌었다.

오는 9월에는 에머슨 대학의 조미나 박사가 재즈 즉흥연주와 국악의 요소를 접목, 창의적으로 재해석해 국악재즈 공연을 갖는다. 김병국 동문과 이메일로 인터뷰, 예술협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들어봤다. -편집자-



김병국  
공대 71

- 공학자가 자신의 전공과는 전혀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궁금하다. 원래 예술에 대해 감성이 풍부한가.

“어려서부터 예술에 관심이 많았다. 특히 외할아버님(\*이동

훈)이 일제시대부터 화가로 활동하시고 1949년 제1회 국전에서 서양화 부문 대통령상을 받으셨다. 그리고 어머님께서도 환갑 가까이 동양화를 시작하셨다. 나 자신 음악도 무척 좋아했다. 피아노와 오르간을 전공한 아내(김유경, 전 뉴잉글랜드 동창회장)와는 동문 부부다. 딸도 바이올리니스트로 활약하고 있다.

\*이동훈(1903~1984): 평안북도 태천 출신으로 향토애의 시각으로 정감 깊은 풍경을 주로 그렸다. 1960년 녹조소성훈장, 1963년 대한민국문화포장을 받았다.

- 한미예술협회를 만들게 된 특별한 계기 또는 동기가 있는가? 안하면 편할텐데 왜 사서 고생을 하시는지?

“보스턴은 누구나 알다시피 하버드와 MIT 등 세계적인 대학들을 비롯해 미국의 건국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다. 그런데도 한국 문화를 알릴 마땅한 단체가 없는 것을 안타까워 하고 있던 참에 여러 동문들이 뜻을 같이 하게 돼 발족하게 됐다. 사서 고생한다는 말씀이 맞지만 또한 그에 못지 않게 많이 배우고 좋은 분들을 만나게 돼 보람을 느낀다.

- 첫 해는 무척 어려웠을텐데...

“매우 힘들었다. 한국 사회에서 모금하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처음엔 (돈을) 무척 아껴 썼다. 사실 예술협회도 다른 단체처럼 몇 년 하다가 그만 둘 줄 알았다고 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다.

2013년 창립 첫 행사로 국악 콘서트를 열었는데 예상외로 반응이 뜨거웠다. 이어 같은 해 12월 조던 홀(뉴잉글랜드 음악원의 콘서트홀)에서 실내악 음악회를 열었다. 두 행사 모두 많은 교민들이 참석하고 격려해 주셔서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한다.”

- 가장 큰 걱정거리는 무엇이었나?

“첫해는 아무래도 재정이 제일 걱정이었다. 당초 조던 홀 음악회를 교향악단

연주로 계획했지만 내부 논의를 거쳐 여덟 명의 음악인을 모시는 실내악 공연으로 치렀다. 그럼에도 재정 적자가 1만달러나 났는데 다행히 LG 전자 등의 후원으로 큰 손해없이 창립 첫 해를 지낼 수 있었다.”

- 에피소드도 적지 않았을 것 같다.

“앞서 언급했듯 예술협회 첫 행사가 국악 콘서트(4월 20일)였다. 한국에서 국악인 여덟분을 초청하는 등 규모가 컸다. 그런데 행사가 열리기 5일전 보스턴 마

2013년부터 행사를 갖게 되었고 첫 몇 년은 모금만찬으로 기금을 모았는데 대한민국 외교부 행사 그랜트를 총영사관을 통해 받고 있어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매사추세츠 주정부와 보스턴 파운데이션에서 상당한 금액의 그랜트를 받았다. 미국 주류 기관으로부터 우리의 활동을 인정받아 참으로 흐뭇하다. 특히 보스턴 파운데이션 그랜트는 신청기관의 14%만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만



한국예술종합학교 초청 무용공연(위). 주류사회의 관심이 쏠린 국악 콘서트.

라톤에서 폭발 사건이 발생했다. 곧바로 보스턴 전 지역에 모임 금지령이 내려졌다. 혹시 모를 후속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다.

다행히 용의자는 18일 체포됐지만 한국에서 온 연주자들은 리허설 등 아무 준비를 할 수 없었다. 범인이 조금만 더 늦게 붙잡혔더라면 첫 공연이 취소될 뻔 했다.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두근거릴 지경이다.”

- 단체를 운영하려면 무엇보다 기금이 필요할텐데 어떻게 조달했나?

“예술협회를 2012년 6월에 발족하고 12월에 기금모금만찬을 열었다. 아무 해 놓은 일도 없는데 그때 모금만찬에 참석하고 기부해주신 분들께 한없는 감사를 드린다.

큼 까다로운데 우리가 리스트에 포함돼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들은 누구인가?

“매년 총영사관에서 후원을 해주는데 몇몇 행사는 우리와 공동 주최를 할 만큼 적극적이다. 특히 뉴잉글랜드 음악원의 변화경 교수님을 비롯한 11분의 자문이사님들을 포함, 약 40분 정도의 이사님들께서 우리를 열성적으로 도와주신다.

이외에도 30분 정도의 봉사자들이 각 커뮤니티에서 일하며 상당수 입양인 출신 봉사자들도 우리를 도와주신다. 무엇보다 예술협회의 취지를 이해하고 뜻을 같이해 모금만찬에 와주시는 분들 모두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들이시다.”

- 연중 공연이나 행사는 몇번이나 개최

하는지?

“봄과 가을에 음악회 그리고 가을 미술전은 연례 행사이며 때에 따라 특별 음악회나 미술전이 첨가된다. 그밖의 문화 행사들도 미국 기관들과 협업해 진행하고 있다.”

- 지금까지 거처간 유명 예술인들은?

“피아니스트 백혜선도 우리가 초청해 연주회를 가졌다. 1994년 차이콥스키 콩쿨에서 3등(1등 없었음)을 한 중견 음악인이다. 피아니스트 김정자 역시 Kosciuszko Chopin Competition에서 1등을 한 재원이다.

첼리스트 문태국은 지난 2014년 Pablo Casals 콩쿨에서 1등을 차지해 이름이 널리 알려진 분이다.

지난 2015년 파가니니 콩쿨 1등, 2022년 시벨리우스 콩쿨 1등을 차지한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도 빼놓을 수 없다. 그 래미상을 수상한 Parker Quartet 사중주 그룹도 우리와 함께 공연을 가진바 있다.”

-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했나?

“오는 10월 2일에는 터프츠 대학에서 아리랑 콘서트가 열린다. Antony DeRitis가 작곡한 'Arirang Together'가 선보인다. 많은 분들이 콘서트를 찾아주셔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란다.”

- 보람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

“우수한 한인이나 2세의 음악과 미술인을 소개하는데 큰 보람을 갖는다. 보스턴은 일본과 중국에 이어 한국에 관심이 많다. 10년 전부터 거의 매년 대학을 방문해 국악을 소개할 수 있었던 것도 좋았다.

특히 음악 전공 미국 학생들에게 국악과 국악기들을 소개할 수 있었다. 보스턴 거주 예술인들의 공동 창구가 되어 같이 상의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으로 계속 발전하고 싶다. 동문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도움을 바란다.”

예술협회는 비영리기관으로 국세청(IRS)에 등록돼 있어 기부금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다.

Korean Cultural Society of Boston  
31 Lillian Rd., Lexington, MA 02420  
▲문의: (781) 367-5993

김병국 교수는

▲매사추세츠주립대 전기공학 박사

▲매사추세츠주립대 로웰 전신과 교수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 제9대 회장

# “우린 화음의 꽃이 피는 가족입니다” 장인화 동문 이어 삼남매가 모두 음대 졸업 97세 고령에도 맑고 청아한 소프라노 ‘고음’

“Du holde Kunst, in wieviel grauen Stunden, Wo mich des Lebens wilder Kreis umstrickt~.”

맑고 청아한 노래가 귓전에 울리자 어 느새 위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독일어 발음도 너무 또렷해 혹시 ‘원어 민’ 이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다.

“너 아름다운 예술아/ 얼마나 많은 암울한 시간에/ 나를 인생의 황량한 현실이 조여올 때에/ 너는 나의 마음에 온화한 사랑을 불붙였고/ 나를 더 나은 세상으로 인도하였지/ 그 아름다운 멜로디를 듣고 있으면/ 언제나 즐거운 기운이 솟아나/ 마음의 방향이 사라진다네.”

노래를 부른 이는 올해 97세의 소프라노. 바로 장인화 동문으로 음대 2회 졸업생이다. 그분의 노래에서 나이를 먹는다는 건 나무의 나이테처럼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힘의 원동력임을 알게 된다.

장 동문의 애창곡이 ‘An die Musik’ 곧 ‘음악에 붙임’이다. ‘가곡의 왕’ 슈베르트가 작곡한 소박하면서도 간결하게 예술에 대한 사랑을 고백한 노래다. 그의 친구인 쇼베의 시를 노랫말로 해 만든 곡으로 전해진다.

3분이 채 되지 않는 굉장히 짧지만 음악에 대한 최고의 헌사라는 생각이 든다. 옛 학창시절 정규교육과정 음악 수업시간에 한번쯤은 배우거나 들어봤을 정도로 유명한 가곡이다. 편안하면서도 노래 속에서 여백의미를 느끼게하는 명곡이다.

장 동문은 노랫말에서처럼 암울한 시대를 살아냈던 분이다. 인생의 황량한 현실이 조여올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며 마음을 다잡았다.

1926년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 시절 평양에서 태어난 장 동문은 당시 경성에서 가장 명성이 높았던 서문여중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일본인외에는 입학이 거의 불가능해 미션스쿨인 이화여중에 들어갔다.

“이때 처음으로 음악에 눈을 떴어요. 합창단에 들어간 것이 계기가 돼 성악의 길로 들어서게 됐지요.” 당시 합창단 지도교사는 명문 우에도 음악원 출신의 박은영 선생. 장 동문을 눈여겨 본 그는 해방이 돼 국립서울대학이 문을 열자 음대 진

학을 권유했다.

당시 성악과는 10여명에 불과했다. 동기생 중엔 이정희(알토), 원경수(바이올린), 백낙호(음대교수, 피아노), 오현명(전 한양대 음대학장) 등 쟁쟁한 인물들이 적지 않았다. 당시 교수진도 기억 속에서 소환해냈다. 소프라노 김천애, 알토 김혜란, 테너 박은영(월북), 베이스 이인범 등 면면을 보면 당시 성악계를 이끌었던 슈퍼스타들이다.

음대 재학 중 KBS 방송국 합창단원으로도 활약했던 장 동문은 대학에도 출강하는 등 음악이 그를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었다. 부군은 교육가, 사업가, 시인

아들인 거지요.”

삼남매의 맏이는 주훈(음대 69, 클라리넷), 이어 주일엽(음대 73, 바이올린), 주호(음대 76, 비올라) 순이다.

주훈 동문은 서울예고에서 클라리넷을 전공했다. 우연히 동네 선배의 클라리넷 연주에 흠뻑 빠졌다고 한다. 잠결에도 클라리넷을 잡고 연주하는 시늉을 하자 부친이 다음날 악기를 사줘 결국 어머니의 뒤를 이어 음악의 세계에 들어서게 됐다.

예고시절 당시 교장이었던 임원식(전 국립교향악단 지휘자)씨가 그의 기량을 극찬, 클라리넷 주자로선 한국에서 처음

지휘를 공부했다. 귀국해선 KBS 교향악단과 청주시립교향악단 지휘자, CBS 방송국 음악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미국에 와서는 서던 캘리포니아 오케스트라 지휘자 등으로 음악활동을 이어갔다. 특히 디즈니홀에서 남가주 총동창회 합창단을 지휘해 동문들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그가 지휘한 경력은 270여회가 넘는다.

삼남매는 음대재학시절 같은 과목을 수강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과목은 이남수 교수의 ‘오케스트라 클래스’

나이 차이는 있었으나 주훈 동문이 제대(육군본부 군악대)한 후 복학을 한 터라 삼남매가 함께 수업을 듣게 된 것이다. ‘주 트리오’가 결성됐다고 할까.

음악은 손자에게까지 대물림됐다. 대학에서 재즈 피아노와 작곡을 전공한 주호 동문의 아들 존이 음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존은 앞으로 가족연주회를 유튜브에 올려 서울대 동문들은 물론 주류사회에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97세의 연세에 할머니 만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성악가는 아마 이 세상에 거의 없을 거”라며 벌써부터 흥분했다.

삼남매의 걱정은 어머니의 ‘연세’다. 불과 3년 후엔 백세를 맞게 돼 톱툰히 추억을 쌓아 두기로 했다.

첫 가족연주회가 지난 5월 주일엽 동문 집에서 열렸다. 어머니 장 여사는 삼남매 반주에 맞춰 ‘음악에 붙임’을 불렀다. 마치 자신의 일생이 노래에 담아 내려는 듯 한소절 한소절 가사를 음미해가며 불렀다.

세남매의 꿈은 어머니에게, 어찌면 마지막 될지도 모를 무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남가주 총동창회 송년모임 때 어머니가 삼남매의 반주에 맞춰 ‘음악에 붙임’을 동문들 앞에서 부르면 어쩌까 기대를 해보기도 한다.

“음악이 나와 가족을 더 나은 세상으로 인도했지요.” 장 여사는 이 텍스트를 다시금 머릿속에 곱씹었다.

“때때로 한숨이 너의 하프에서 흘러나왔고/ 더 달콤하고 신선한 너의 화음/ 더 좋은 시절의 하늘을/ 내게 열어보여 주었지/ 너 고상한 예술아/ 이에 나는 너에게 감사한다.”

취재=홍선례(음대 70)



▲ 지난 5월 열린 가족 음악회. 왼쪽부터 주일엽(바이올린), 존 주(피아노), 주호(비올라), 임경림(클라리넷·Mrs. 주호), 장인화 동문, 소프라노 장 동문이 97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슈베르트의 ‘음악에 붙임’을 불러 삼남매도 어머니의 맑고 청아한 고음에 놀랐다.

◀ 왼쪽부터 주훈, 어머니 장인화, 주일엽. 가족이 모두 서울대 음대 동문이다.

◀ 어린 시절의 ‘주 트리오’ 왼쪽부터 주호, 주훈, 주일엽 남매.

## 애창곡은 슈베르트의 ‘음악에 붙임’ 동창회 송년모임 때 무대에 섰으면 주훈·주일엽·주호 이어 손자까지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시대의 선각자였다. 농촌지도자를 양성해야 나라가 발전한다며 중앙농민대학을 설립하기도 했다. 이후 재단을 국민대학으로 넘겨 종합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게 도움을 줬다.

장 동문은 슬하에 삼남매를 두고 있다. 모두 서울대음대를 나왔다. 이처럼 온가족이 음악을 전공한, 그것도 서울대를 졸업한 경우는 아마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것 같다.

장 여사는 삼남매에게 음악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마 (나의) 음악적 소양이 유전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이 모두 음악을 자연스럽게 받

으로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했다는 얘기가 관악계에서 전설처럼 회자된다.

주일엽 동문 역시 서울예고를 나와 서울대학에 진학한 바이올리니스트다. 국립교향악단과 KBS 교향악단에서 바이올린 부수석을 지냈다. 뉴욕퀸스심포니악장, 퀸스칼리지에 출강하는 등 미국서도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그 역시 ‘자의에 의해’ 음악을 전공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현악합주부가 생겨 호기심이 발동, 바이올린을 잡은 것이 평생의 ‘업’이 됐다는 것이다.

막내인 주호 동문은 비올라 연주자. 브루클린 콘서버터리와 퀸스칼리지에선

## 눈물 한 방울 회고록을 대신할 인간 이어령의 내면 일기

시대의 지성 이어령(국문 52) 동문이 마지막 3년간 삶을 반추하고 죽음을 독대하며 써내려간 내면의 기록.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추억부터 가장 작아서 가장 큰 가치 ‘눈물 한 방울’까지, 세상을 놀라게 한 자유로운 사유와 창조적 영감부터 병마와 싸우며 가슴과 마음에 묻어 두었던 절규까지.

생전에 공개하지 않았던 인간 이어령의 내밀한 말이 시, 산문, 평문 등 다양한 형식의 글로, 그와 어우러지는 그의 그림과 함께 세상에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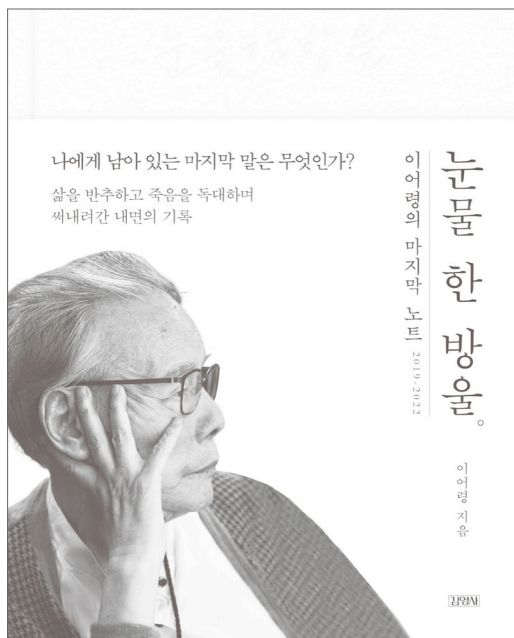
저자는 병상에서도 사유와 창조의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고통속에서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새로운 화두를 모색했다. 바로 ‘눈물 한 방울’이다.

그 흔한 눈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앞선 화두들과는 무엇이 다른지 살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디지로그’와 ‘생명자본’ 등 저자가 이전에 제시한 문명론의 핵심은 변화와 융합이다. 시대의 변화를 날카롭게 포착하고 이질적인 개념을 감쪽같이 연결하는 지성과 사유가 거대 담론의 원동력이다.

남이 못보는 걸 보고, 없던 걸 만들어내는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날갯짓은 차이를 발견하고 비교하는 비평적 두뇌를 엔진으로 삼아 비약한다.

‘눈물 한 방울’은 심장에서 시작한다. 언어 이전의 마음으로 돌아간다. 저자가 병상에서 자신에게 남는 ‘마지막 말’을 찾아 노트를 써 내려가면서 발견한 것은 ‘디지



로그 ‘생명자본’ 같은 거창한 개념어가 아니라 ‘눈물 한 방울’이라는 마음의 표현이다. 단, 나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다. “자신을 위한 눈물은 무력하고 부끄러운 것이지만 나와 남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있다”(7쪽). 피(정치)와 땀(경제)의 논리로는 대립과 분열을 극복할 수

없다. 저자는 작은 눈물방울이 품은 관용과 사랑에서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희망의 씨앗을 보았다.

적요한 밤에 하루를 되돌아보며 쓰는 일기처럼, 이 책은 인간 이어령이 써온 88년 인생의 에필로그와 같이 읽힌다. 저자는 자서전이나 회고록을 남긴 적이 없지만, 이 책을 통해 저자가 살아온 삶의 면면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지성과 상상의 원천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말한다. 죽을 때까지 다 셀 수 없는 모래알들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징표로 등장한다(“어머니... 나는 지금 아직도 모래알을 세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다 헤지 못하고 떠납니다.”, 12쪽).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죽음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망연자실의 감정이 드러나는 글(“지금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는데 국어시험 치듯 다 풀 수 있었는데...”, 78쪽), 고통이 생명의 일부라는 깨달음의 기록(“아픔은 생명의 편이다. 가장 강력한 생의 시그널.”, 171쪽)은 읽는 이의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김영사 제공〉

## 변만식 동문의 ‘운동주 시선’ 의회도서관 ‘소장’ 구순 넘어서도 영역 활동, 한국의 시문화 알려

변만식(사대 49) 동문의 저서 ‘운동주 영역시선’(Yoon Dong-Ju Selected Poems)가 최근 미국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소장 도서로 선정됐다.

버지니아주 스프링필드에 거주하는 변 동문은 운동주(1917~1945)의 대표적인 시를 영어로 번역해 실었고, 해설도 곁들였다.

의회 도서관은 책, 인쇄물, 음반, 사진, 지도, 악보, 영화 및 복사본 등을 비롯해 1억5,000만 여 종의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다. 세계 최대규모의 지식과 창작물의 보고로 그 규모는 날로 방대해지고 있다.

책에는 ‘서시’(Sky, Wind, Star and Poem), ‘자화상’(The Self Portrait), ‘또다른 고향’(Another Homeland), ‘참회록’(The Confession) 등 13편의 시를 한글과 함께 실었다.

운동주는 고고한 자세로 순수문학만을 추구한 박애주의 시인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변 동문은 “운동주는 실제 동양 3국에 걸쳐 문학의 향기로움을 전해주고 의로운 죽음을 당한 시성이라 지칭할만하다”며 “이를 알리기 위해 영어번역 시선집을 발간했다”고 말했다.

‘영역 시선’에는 중국 지린성 룡정시 명동촌에 있는 운동주의 생가와 입구에 ‘서시’를 새긴 비석, 1943년 일본에서 귀국 전 친구들과 소풍갔을 때 모습 등을 담은 사진과 삽화가 실려있다.

운동주를 기리기 위해 릿쿄대 동창들이 만든 ‘릿쿄의 모임’ 대표 아니기하라 야스코의 ‘기적의 시(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도 번역돼 있다.

‘거리에서’ ‘별해는 밤’ ‘창공’ ‘무서운 시간’ 등 운동주의 시 33편과 시인 연보가 한글로 게재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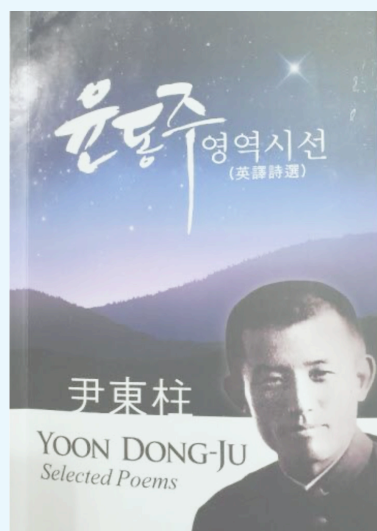
‘영역시선’ 2부에는 구상의 ‘초토의 시’(Poem of the Wrecked), 김광섭의 ‘마음’(Mind), 김소월의 ‘초혼’(Le Invocation)과 ‘진달래꽃’(The Azalea), 노천명의 ‘이름없는 여인이 되어’(Being an Incognito), 박목월의 ‘하관’(The Burial), 박두진의 ‘꽃’(Flowers) 등 근현대 한국 시인의 작품 26편을 번역해 소개했다.

민병희 인하대 영문학 교수는 추천의 글에서 “작가의 영역은 탁월하고 흠이 없는 완벽에 가깝다”고 높이 평가했다.

황해도 개성 출신인 변 동문은 사대 영어교육과 재학 중 미 육군 일간 기관지인 ‘성조지’(The Stars & Stripes)에서 기자로도 일했다.

운동주 문학회 회원인 변 동문은 자서전 ‘내가 걸어온 길’(The Path I Walked)을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로 내기도 했다.

한편 변 동문은 올초 자동차 사고로 현재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워싱턴 DC 동창회는 변 동문이 아직 목에 기브스를 하고 있지만 정신만은 예전과 변함없이 정정하다고 근황을 전해왔다.



### 동창회비 납부하시면 이런 혜택들이 ...

미주 동창회는 동문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동문님의 진심어린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동창회 활성화 및 동창회보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학기금을 비롯한 각종 사회공헌 프로그램 지원 등에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 ▲매월 동창회보 우송 ▲서울대 병원 종합건강검진 10% 할인
- ▲한국의 SNU 베리타스 몰 이용(각종 유명 브랜드 할인가격으로 구매)
- ▲동창회가 주관하는 각종 공연 초청 등.

이외에도 본국의 총동창회와 연계해 동문님이 더 많은 배니핏을 받으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할 예정입니다.

회비는 동창회보에 별첨한 봉투에 넣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회비 납부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동창회 사무국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미주 동창회는 국세청(IRS)에 비영리기관(501c3)으로 등록되어 있어 회비나 후원금 등은 모두 세금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 미주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 (213) 908-5586 email: snuausa30@gmail.com

## A Personal Odyssey: Was My Choice Worth it?

By John Kim  
김정빈(공대 66)

Fifty years ago today, August 7, 1972, I came to the United States as a graduate student to receive a better education available to me. Upon graduation, I decided to stay in the US, first at least for a while to gain further experience, and then permanently with an expectation that I would have better opportunities for my career, and my children and their children would have a better life in the US.

Having reached the 50-year milestone, especially now that I am retired, I reflect on the choice I made. If I stayed in Korea or went back to Korea sometime in the middle of my career, I would have lived a comfortable and elite life, enjoying all the privileges freely (also unfairly, I hastily admit) bestowed upon me because of my socio-economic status and educational background.

In today's Korean jargon, I have good specs. By staying in the US, I have accomplished a lot more professionally than I could have accomplished had I returned to Korea. The price I have paid, however, is that I have lived all my adult life as a minority, feeling and being considered as an outsider (not so much in professional settings - mostly academic environments in my case - but more so in social settings and interactions), and trying to assimilate my way to the mainstream culture (a NYT columnist, Jay Kang, recently articulated that Asians are becoming white as much as white will allow).

It is a consequence of my choice, but my children and their children will continue living in their birth land as a minority with no choice on their part, never escaping from the perennially awkward question of "where you are really from."

Was my choice worth it? I cannot tell for sure, but at least I have no regrets. It was Kundera, the author of a popular novel, *The unbearable lightness of being*, who said that "each person has one life to live which occurs only once." It is moot to ponder about the other life that I have not lived. I am responsible for the choice I made and I own the consequences. I have had fair opportunities to use my talent, both given and earned, and I have been

recognized and rewarded fairly.

I have encountered many good people, a much broader spectrum than I would have encountered had I stayed in Korea, from whom I have learned a great deal about life, and with whom I have shared my humbling, embarrassing and exciting moments of life. Oh yes, I have had my share of ups and downs, both personally and professionally, and I have a list of "should have and could have." However, paraphrasing my favorite quote by Albert Camus, I am the sum

will have the wisdom to endure the injustice inflicted upon them, and they will thrive and flourish in spite of it and they will become a person of understanding, appreciating and respecting differences because of it.

I also hope that soon they will be living in a better world, in which all of them would be judged based on who they are rather than whence their ancestors came from.

Reflecting on my life as a whole I reiterate what I said in the past: I have been blessed more than I de-



① FAMILY PHOTO The most fascinating moment of my life. ② Picture taken during graduate student at Stanford University. ③ The 2002 recipient of Samsung Ho-Am Priz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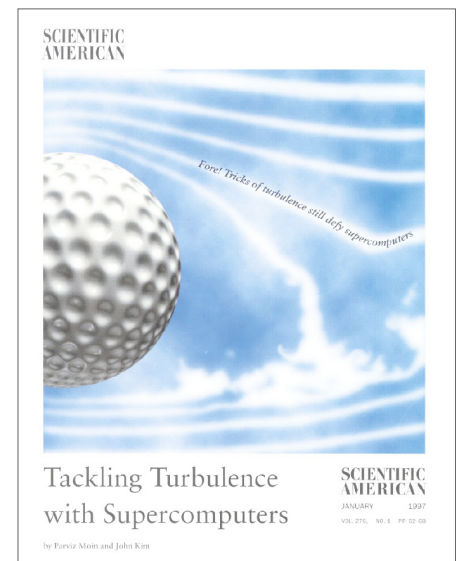
*“Reflecting on my life as a whole I reiterate what I said in the past: I have been blessed more than I deserve, and I have been trying to become a better person worthy of the Grace I have received.”*

of all choices I have made.

Was my choice worth it for the sake of my offspring? I am not sure, and I am not free of the guilty feeling weighing on me whenever I encounter, directly or indirectly, racially-motivated injustice inflicted on minority people. I just hope that they

serve, and I have been trying to become a better person worthy of the Grace I have received.

Regrettably, I have failed more often than not to meet my own standards, let alone the absolute standards. I am still a work in progress, so to speak, even after 74 winters! A



recent medical episode reminds me, once again, that I am not in control of my own life and I must humbly accept whatever lies ahead.

Postscript: I have shared this essay with my friends and colleagues, some of whom then shared it with their children. The feedback I have received are interesting and I still need some time to process. Most Korean friends responded that they can relate the emotion expressed in the essay, which was not surprising. Most foreign-born colleagues responded in a similar way, which was not surprising either.

My white colleagues fall into two groups. Some expressed their regrets and were apologetic that our society is broken. Some others expressed that they were surprised (some even said shocked) as they never thought that I could be a victim of racism (note that I never mentioned racism per se) considering my status as an accomplished scientist. Some in this latter group surmise somewhat naively that once a person climbs up to a higher echelon of the society, they will become immune to social injustice. Others are genuinely decent people who are truly color blind to race (one mentioned that he just sees me not my ancestry). Unfortunately they are not the majority.

Postscript 2: I wrote this essay in English in the hope that the readers will share it with their second-generation offspring.

**John Kim**

Rockwell Collins Distinguished Professor Emeritus  
Mechanical and Aerospace Engineering Department  
UCLA

## 기타와 어우러진 바이올린의 선율 김유은 동문의 연주에 갈채 쏟아져

맑은 듯 완전히 다른 바이올린과 기타. 지난 8월 5일 LA의 S-빌리지에서 열린 김유은(음대 07) 동문과 이네스 토메의 하우스 콘서트는 남가주의 한여름 밤을 고운 선율로 가득 채운 모처럼의 무대였다.

김 동문과 토메는 이날 한국의 가요 '바위섬'과 민요 '쾌지나 칭칭나네' 등을 기타와 바이올린을 위해 완전히 새롭게 편곡,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 맑은 듯 다른 두 악기의 음색과 연주기법은 오히려 서로의 개성을 돋보이게 한 아름다운 하모니였다.



그에 앞서 가진 또다른 콘서트에서 김 동문은 아주 특별한 무대를 선보였다. 바로크 악기와 모던 악기를 비교 설명하는 연주회를 가진 것. 작곡 당시의 악기로 연주를 재현한다는 것은 또다른 감상의 재미였다.

김 동문은 예원중·서울예고·서울대 음대와 대학원을 거쳐 USC에 유학, 아티스트 디플로마 과정을 마쳤다. 피아니스트 장성과 이미 세계적인 듀오로 인정받았고 국내외 수많은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등 바이올린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은 스승인 고토 미도리도 감탄할 정도였다.

특히 지난 몇 년간 김 동문이 보여준 행보는 남가주 총동창회가 제작한 유튜브 동영상 통해 더욱 화제가 됐다.

### 무지카라반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연주회가 취소되자 이에 낙심하지 않고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코트야드에서 동료 바이올리니스트 에피엔 가라와 이웃들을 위해 음악회를 열었다.

코로나로 미국 사회가 쇠락해 다시피해 패닉에 빠졌던 이웃들은 김 동문과 가라의 아름다운 연주에 위로를 받았고 연주자들을 위한 격려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생각보다 무대의 문이 오랫동안 닫힐 조짐을 보이자 김 동문은 '뮤지카라반(Musikaravan)'을 만들어 직접 관객들을 찾아가는 연주회를 기획했다.

6개월 동안 서부 각 지역을 여행하며 주민들을 위해 연주하고 녹음하고 또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등 쉬지 않았다.

팬데믹의 공포가 가시자 듀오로 활약했던 피아니스트 장성 등 세계 정상급 연주자들과 협연 및 음반 녹음을 재개하게 됐다. 마스크를 쓰고 극히 제한된 소수의 관객만 허락된 무

대에 서거나 온라인으로 들려주던 연주회는 이제 아련한 옛 추억이 되어 가고 있지만 김 동문에게는 모두가 더 없이 소중한 무대였다.

또한 바이올리니스트 에피엔 가라와 창단한 챔버 앙상블 '델리리움 무지쿰(Delirium Musucum)'의 활동도 재개했는데 늘 창의적이고 새로운 시도로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다. 내년에는 다양한 세계의 전통음악과 접목한 연주를 기획하고 있고 한국음악도 소개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이름 후배들과 솔뱅 투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모교 발전기금 마련 자선음악회에서 오케스트라 악장으로, 그리고 협연자로서 완벽한 연주를 선보여 갈채를 받았다.

얼마전 이름 장학생들이 LA를 방문했을 때는 일부러 시간을 내어 후배들과 함께 하루를 보내기도 했다.

"한귀희(미대 68) 선배님 덕분에 후배들과 솔뱅 투어를 함께 한 것은 정말 재밌는 추억이었어요. 솔로나 앙상블 연주는 물론이고 델리리움 무지쿰 연주와 녹음 등 스케줄이 잡혀 있어 오는 11월 19일 열리는 서울음대 정기 연주회 참가도 어려울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취재=손영아(음대 85)

## '리멤버 7·27' 프로젝트 김한나(영문과 01) '추모의 벽' 준공식 열린 7월 27일 '화촉'

'리멤버 7·27' 프로젝트로 국내외 관심을 집중시켰던 김한나(한국명 김예진·영어영문학과 01) 동문이 지난 7월 27일 남자친구와 백년가약을 맺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날은 3년여를 끝냈던 한국전쟁이 종성을 멈추고 정전협정을 맺은 날이다.

이날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과 한국인 카투사 4만3,808명의 이름을 새긴 한국전쟁 전사자 추모의 벽(the Wall of Remembrance) 준공식이 열려 김 동문에게는 더욱 뜻깊은 결혼식이 됐다.

준공식에 참석한 김 동문은 이어 연방의사당으로 이동해 신랑 르바이 텔레만과 혼례를 치렀다.

김 동문은 "개인적으로 '리멤버 7·27' 프로젝트 등이 결실을 맺어 (추모의 벽) 준공식이 열렸는데 이날 결혼식을 올려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됐다"고 기쁨을 갖추지 못했다.

### 정전협정 기념일

정전협정 체결 69돌을 맞아 모습을 드러낸 추모의 벽은 미군전사자 3만6,634명, 카투사 전사자 717명의 이름을 군별, 계급별, 알파벳 순으로 빼곡히 새겼다. 이날 김 동문을 비롯해 한인 등 1,000여 명이 준공식을 지켜봤다.

김 동문은 한인 15세 청년들을 모아 '리멤버 7·27'을 결성했다. 그리고 매년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 워싱턴 링컨 기념관 앞의 한국전 참전기념공원에서 행사를 열었다.

한국전 발발일을 뜻하는 '오후 6시 25분'에 시작해 '오후 7시 27분'에 727명의 참석자가 일제히 촛불을 밝히는 형식이다.

김 동문은 정전기념일을 한국전참전용사의 날로 제정해 달라는 법안을 의회에 청원했다.

이날 모든 연방정부 청사에 성조기를 게양하는 기념일로 제정해 달라는 내용이다.

백악관은 물론 의회의 모든 의원들에게 '전화로비'를 했고 당시 찰스 랭글 전 하원의원의 강력한 후원에 힘입어 매년 7월 27일 정전기념일을 '한국전 참전용사의 날'로 제정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 의원들의 전화 로비

랭글 의원 자신도 한국전 참전용사였다. 김 동문은 그 인연으로 랭글 의원의 보좌관이 됐다.

김 동문의 이 같은 프로젝트는 지난 2007년 거주지를 LA에서 워싱턴으로 옮기면서 가장 먼저 한국전 참전기념비를 참배하면서 부터다.

꽃다운 나이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의 자유를 위해 희생한 그

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지난 2017년에는 LA에서 출발해 캐나다-콜롬비아-영국-스웨덴-그리스-터키-남아프리카공화국-에티오피아-인도-태국-필리핀-호주-뉴질랜드-일본-부산-서울까지 꼬박 4개월 동안 한국전 참전국들을 방문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이어 미국 50개주를 돌며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만나고 70개 도시에 세워진 참전기념비에 헌화하는 90일간의 일정도 소화했다. 여비는 자비와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아 마련했다.

서울에서 태어나 6살때 부모를 따라 이민온 김 동문은 초·중·고를 미국에서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이주, 서울대를 졸업했다. 미국에 돌아와 UCLA와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김 동문의 할아버지도 한국전 참전용사다. "한국전쟁은 잊혀진,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의 전쟁, 가장 큰 아픔이자 숙제, 제 인생을 건 사명입니다." 김 동문은 워싱턴에서 연방 보건복지부 부차관보로 일하고 있다.

김 동문은 2009년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일' 법안을 의회에 청원했다.



구독 및 광고 문의는  
213-503-6964  
hongsunrye@gmail.com



# ‘불소’가 치약 성분이라고요? 천만에! 00학번에겐 ‘불타는 소통’의 줄임말

매주 2회, 목요일 저녁 8시와 토요일 오전 8시에 정기적으로 모이는 워싱턴 DC 동창회 테니스 동호회 멤버들. 다른 동호회들과 마찬가지로 테니스 동호회도 단독방을 만들어 소통한다.

현재 워싱턴에는 10개가 넘는 동호회(취미) 및 동아리(학번별 그룹)가 존재하는데 각각의 단독방에서는 매일 다양한 주제로 같이 고민하기도 하고, 또 같이 소리내어 웃기도 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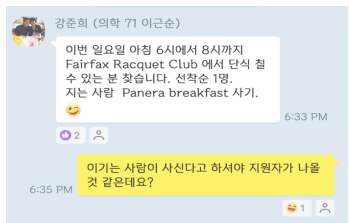
‘아크로폴리스’(75~99학번) 동문들과 \*‘샤로수’(2000학번 이후) 동문들이 주를 이루는 테니스 동호회이지만 막강한 실력의 ‘마로니에’(74학번 이전) 선배들도 격려차 참가한다.

\*샤로수는 서울대학교 정문의 ‘샤’와 ‘가로수길’을 합성한 이름이다. 서울대

입구 놀거리로 샤로수길은 젊은 상권답게 실험적인 음식점이 많아 서울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대 입구역 동남쪽, 즉 2번 출구 일대에 형성돼 있다.

강준희(의대 71) 동문도 그 분들 중 한 분. 강 동문은 북 버지니아의 몇 안되는 실내 코트를 가진 페어팩스 라켓 클럽의 멤버이기도 한데, 일요일 아침 6시에서 8시까지 늘 함께 치는 친구분이 몇 주간 출타중인 관계로 우리 테니스 동호회에서 단식을 함께 칠 동문을 선착순으로 받겠다고 단독방에 공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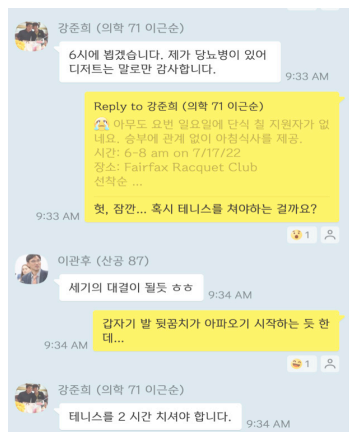
일요일 아침 6시가 이른 시각이기도 하지만 워낙 강 동문의 실력을 알기 때문에 단식 경기를 하겠다고 선뜻 손을 드는 동문들은 없었다. 이날의 에피소드를 ‘마로니에’ 세대 독자들을 위해 해설과 함께 신는다. - 편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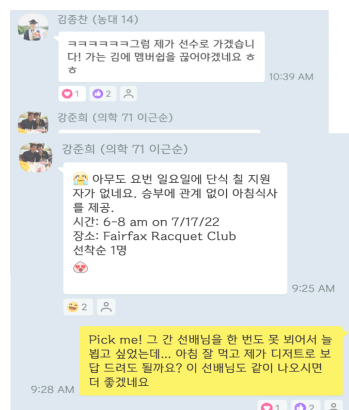
아무도 지원자가 없자 강준희 동문이 승부에 관계없이 아침식사를 제공한다고 잘못 이해한 이주희(음대 89) 동문이 손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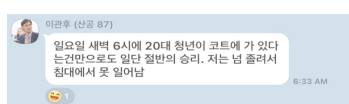
테니스 경기가 끝난 뒤 IHOP에 모여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동호회 회원들. 이날 강준희(의대 71·왼쪽) 동문이 43년 후배인 김종찬(동물생명공학 14·오른쪽) 동문을 격파해 온종일 화제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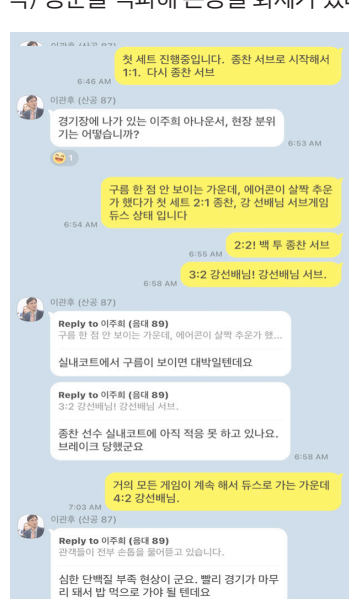
겨우 1년 전에 라켓을 잡고 아직도 렐리 몇 번을 이어가지 못하는 이 동문이 손을 들자 모든 동호회 멤버들은 이 동문이 뭔가 크게 착각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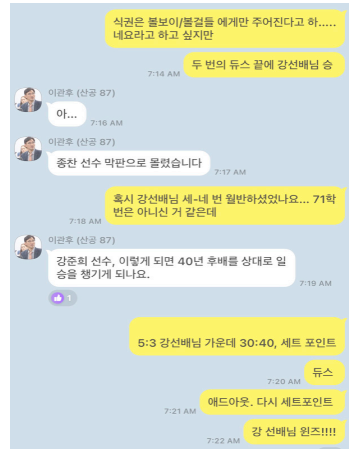
이를 심히 불쌍히 여긴 김종찬(동물생명공학 14) 동문이 25년 선배 한 명을 살리는 심정으로 손을 들어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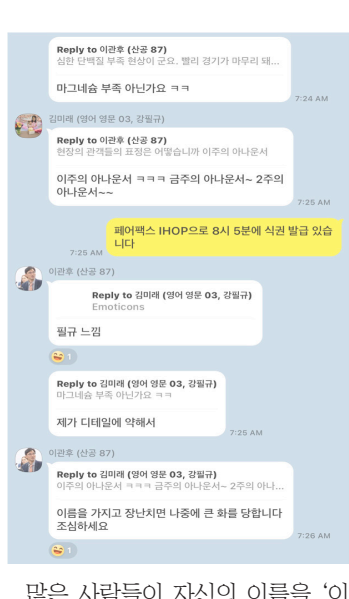
드디어 결전의 날 7월 17일 아침 6시, 아들을 전정터에 내보내는 심정으로 응원나왔다는 이주희 동문, 71학번과 14학번의 맞대결을 단독방에 중계를 시작했다.



개인 유튜브 채널로 라이브 중계를 하려면 구독자가 50명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된 이 동문, 어쩔 수 없이 엄지 손가락 두개를 열심히 플레시 해가면서 문자중계를 시작했다.



집에서 비추얼 관전 중인 이관후(공대 87) 동문과 이주희 동문이 중계와 해설을 맡았다. 새벽 6시부터 까뽏까뽏 거리는 소리로 테니스 동호회 멤버들의 일요일 아침 잠을 뺏아가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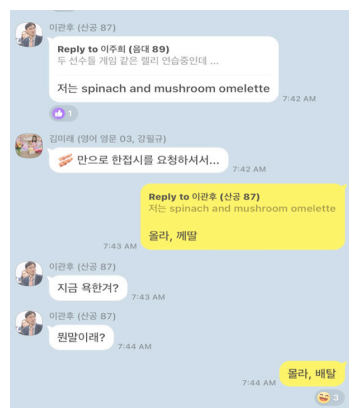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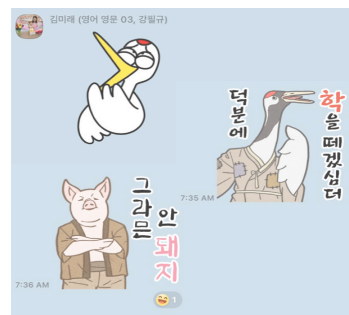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이관우’라고 부르다며 종종 하소연하던 이관후 동문, 결정적인 순간에 이주희 동문의 이름을 ‘이주희’라고 쓰고 바로 정정하지만, 이를 놓치지 않고 바로 아픈 곳을 찔러버리는 이주희 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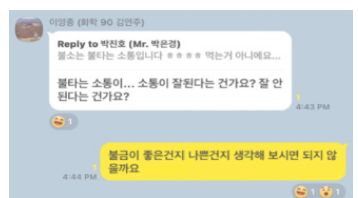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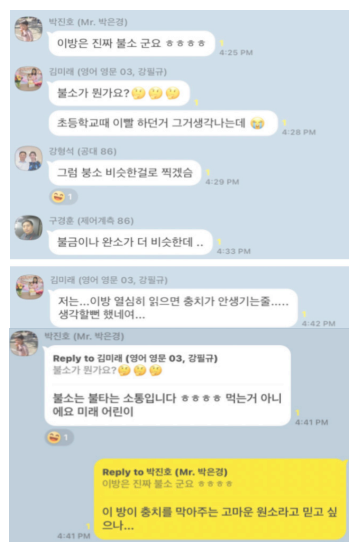


카톡에 등장하는 강필규(공대 00)와 김미래(영문 03)는 동문 부부로 테니스 동호회의 키 멤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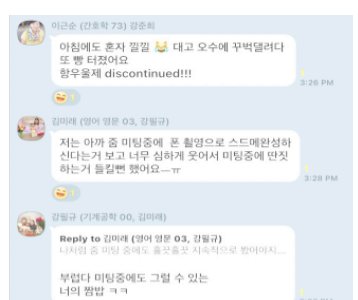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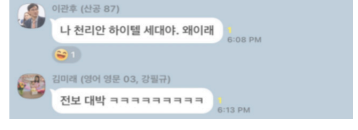
## ‘마로니에’ 세대는 이해 어려운 ‘샤로수’ 은밀한 언어의 유희를 처음 공개한다



게임마다 듀스에 듀스를 반복한 끝에 강준희 동문이 무려 43년 후배인 김종찬 동문과의 단식 대결에서 승리를 거뒀다. 경기를 직관한 동문들과 집에서 손톱을 깨물며 이관후/이주희 동문의 중계와 해설로 비추얼 관람을 한 동문들이 모두 페어팩스의 IHOP에 모여 아침 식사를 하기로 약속하면서 한동안 테니스 동호회 멤버들의 유머코드인 아재개그 이모티콘 대란이 벌어진다.



카톡방을 지켜보던 박진호(박은경 동문의 배우자) 동문은 “이 카톡방은 진짜 ‘불소’군요” 하며 모든 이의 얼굴에 물음표를 피어나게 했다.



과연 ‘불소’가 무엇일까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관후 동문은 “세종대왕과 양주동 박사, 최현배 선생님께 죄송하다”는 고해성사를 읊조린다. 박진호 동문이 김미래 동문에게 일갈하는 문자가 하이라이트다. “불소는 ‘불타는 소통’입니다. ㅎㅎㅎ 먹는거 아니에요. 미래 어린이.”

테뉴어까지 받은 대학교수인 김미래 동문은 미팅 중 (동호회 카톡 읽고) 너무 심하게 웃어 탄 짓 하는 거들길 뻔 했다고 실도, 부러움을 샀다.

취재=이주희(음대 89)

## 한영신 박사의 건강한 뇌를 위한 제언 어린이와 노인은 식생활 관리 매우 흡사 영양제는 결코 음식을 대체할 수 없어



**한영신**  
생과대 86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는 지식이 힘이었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지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어려운 지식을 쉽게 풀어내며 방송하는 유튜브 같은 채널이 생기면서 지식은 이제 더 이상 힘이 되는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지식의 홍수에서 어떤 것을 취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의 시기다.

이럴 때 일수록 과거에 중요시 했던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 음식도 진정한 가치를 생각할 때다. 음식이 모자라던 시기에는 음식은 생존이고 부모의 사랑이었다.

과학의 발전으로 지식이 넘쳐나고 음식이 넘쳐나면서 음식 안의 화학적 요소인 영양소에 집중하고, 어떤 음식은 건강의 위협요인

이 되었다. 수많은 영양지식 속에서 오히려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고, 식생활은 소홀해져 가고, 영양제가 바른 영양인 것이 되는 세상이 되었다. 무언가 잘못 되가는 느낌이다.

필자는 오랫동안 어린이 식생활을 관리하고 연구하는 일을 해왔다. 그러다 최근에는 노인 식생활을 연구한 전문가가 합류해 노인 영양을 하기 시작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어린이와 노인이 식생활 관리에 있어서 매우 흡사하다는 점이다.

어린이는 성숙으로 가는 발달과정에 있다면, 노인은 완성된 기능이 퇴화되는 발달 퇴화과정에 있어서 둘 다 발달적으로 비슷한 이슈를 가지고 있다. 얼마전 어린이 중심으로 식생활과 뇌발달 관련된 책을 쓴 것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글을 써보려고 한다.

뇌발달에 관련된 음식을 이야기하겠다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뇌에 좋은 영양소를 기대한다. 그러나 음식은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과학은 신경망 형성이 지능을 좌우하고, 감정이 행동을 조절한다는 것을 밝혀냄과 더불어 음식이 신경망 형성을 위한 중요한 자극이고, 감정 발달과 조절의 요인이라 하였다. 음식이 영양소가 아닌 음식자체로 지능과 행

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뇌의 구조는 전공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이 가능한데, 뇌에 미치는 식생활을 가치를 이야기할 때 뇌의 3단구조가 가장 적절하다. 뇌는 가장 안쪽 1층에 생명의 뇌, 2층에 감정의 뇌, 3층에 사고의 뇌로 구성된다. 층을 이루고 있는 구조는 건물이나 탑과 같이 아래층이 튼튼해야 안정되게 유지가 된다.

생존의 뇌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먹거리를 생명의 뇌에서 관리하게 하였고 우리는 이것을 ‘본능’이라 한다. 생존의 뇌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면 정서의 뇌가 불안해지고 사고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음식은 생존 본능의 뇌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는 기본이다. 먹는 것을 잘 챙겨 먹어야 감정이 안정되고, 사고의 뇌가 잘 돌아간다. 영양제가 음식을 대체할 수 없는 이유이다.

뇌의 중간에 위치한 감정의 뇌는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일으킨다. 인간은 생후 7개월까지 서러움, 분노, 두려움, 기쁨의 4가지 원시감정이 나타나는데, 이 감정들은 생존을 위한 의사표현이다. 음식은 원시감정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배가 부를 때 만족의 미소로, 배고플 때 서러운 울음으로, 이상한 음식에 대해

두려운 표정으로, 강요된 음식에 대해 강한 분노로 의사를 표시하는 아기들을 보면 음식과 원시감정과의 밀접한 관계를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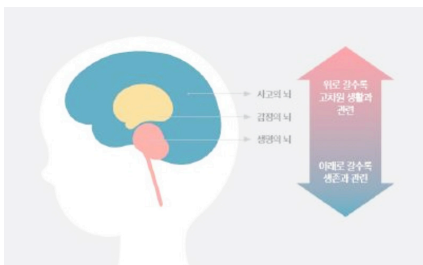
음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 원시감정은 성인이 되어서도 나타난다. 당이 떨어지면 화가 나고, 해외여행에서 새로운 음식을 꺼리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생존을 위한 감정의 뇌의 작용이다.

뇌의 가장 바깥쪽의 사고의 뇌는 자연의 원리를 깨닫는 인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해가는 사회성 등 고차원적인 인간 생활을 관장한다. 식생활에서 오는 오감 자극과 근육활동은 인간의 뇌발달에 지속적인 자극원이 된다. 음식을 단순히 영양소로만 생각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100세 시대에 건강한 신체 뿐 아니라 건강한 뇌를 갖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음식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가며, 건강한 뇌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가보자.

**한영신 박사는**

- ▲서울대 석·박사
- ▲마운트 사이나이 의대 포스트닥
- ▲성균관대 의대 연구교수
- ▲(주) 뉴트리아이 대표



## 서울대 총동창회장 후원 나눔/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 11월 14~15일 · 라스베가스 컨트리클럽



미주 동창회(회장 노명호·공대 61)는 오는 11월 14~15일 라스베가스 컨트리 클럽에서 골프 토너먼트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장학기금 등 나눔의 문화를 실천하기 위한 기금 마련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미주 동창회는 지난 4월 제 1회 서울대 동창회 장학생선발대회를 통해 모두 10명의 대학생들을 선정, 1인당 1만 달러의 스퀴어십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대회는 동문 또는 동문 자녀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미주 전체 한인 커뮤니티에 오픈, 잠재력이 많은 인재들을 발굴해 이들의 학업 및 연구 성취도를 높이고 지원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장학생들은 미주 동창회의 소중한 인적자원으로서 앞으로 동창회의 외연확대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학금 프로젝트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사업이어서 동문들의 참여와 기부 없이는 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번 골프대회는 본국의 김종섭 서울대 총동창회장도 동참의사를 밝히며 특별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미주 동창회의 상임고문도 겸하고 있는 김 회장은 “본국과 미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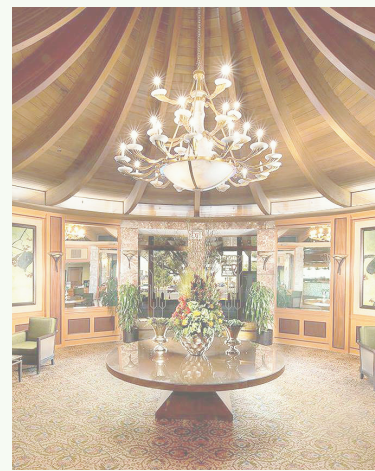
동창회가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 동반성장을 해야 한다”며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회가 열리는 라스베가스 컨트리클럽은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에 인접해 있어 유명인사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지난 1967년 오픈한 골프장은 PGA와 LPGA 등 프로대회도 유치한 바 있어 라스베가스 최고 명소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근에 그랜드캐년 등 관광자원도 풍부해 패키지 여행도 가능합니다.

동문들의 친교도 겸해 열리는 이 대회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 ▲일시: 2022년 11월 14~15일
- ▲신청마감: 2022년 11월 1일
- ▲참가비: \$500 (그린피, 디너 등 포함)
- ▲숙박 및 관광일정: 추후 공지
- ▲장소: The Las Vegas Country Club  
www.lasvegasc.com  
3000 Joe W Brown Dr., Las Vegas, NV
- ▲문의: 310-719-5422  
서치원(대회 조직위원장·공대 69)

# 공학도의 한식조리사 자격증 취득 '필살기' 왕초보도 '장·설·파·마·후·깨·참'만 있으면 Ok 중요한 건 맛, No! '보기좋은 떡이 맛도 좋아'



오정석  
공대 14  
MIT 대학원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됩니다. ①먼저, '왜 우리는 한식조리기능사라는 자격증을 손에 품고 미국에 와야 하는가?'에 대하여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을 설득하고자 합니다.

②초×∞급(왕초보), 초급으로 나누어 자신의 상태에 맞게 가장 빠르고 손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드립니다. (중급, 고급은 유튜브 몇번만 확인하신다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중급 기준: 전업주부 5년차에서 나오는 바이브, 고급 기준: 전업주부 10년차 이상 + 칼로 조각 가능). ③해당 자격증으로부터 파생되는 부가가치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도대체, 무엇을 위해 한식조리기능사라는 자격증을 미국에 오기 전 알아야 하는가? 한국인에게 장(고추장, 된장, 간장), 설탕, 파, 마늘, 후추, 깨, 참기름(기름류)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아메리칸 음식으로만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요리를 배우고 싶지만, 여타 다른 바쁜 일이나 또는 의지박약으로 인해 단기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인 친구에게 자랑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에 한해 이 한식조리기능사는 필수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자격증 따는 초고속 루트

사실, 초고속으로 자격증을 딸 수가 없습니다. 필기 시험 점수를 하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획득하시고, 결과 발표를 기다리셨다가 합격을 하셔야 실기 시험 점수를 할 수 있으며, 동일하게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획득하시면 조리기능사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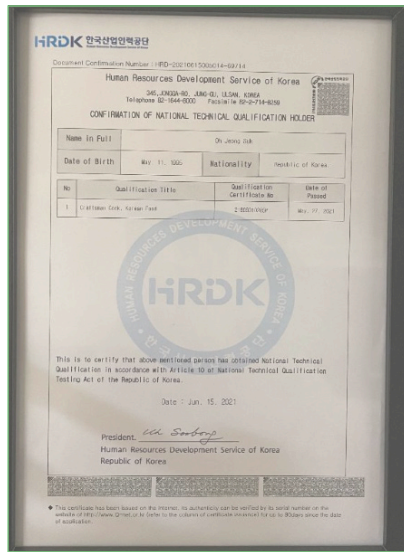
다행인 것은 매우 자주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식조리기능사는 상시시험이 개설되어 정기시험에 해당하는 1년 내 4회 이외에도 한달에 많게는 3번까지도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합격률이 높지 않습니다. 필

기 45.4%, 실기 34.1% (한식조리기능사 2020) 수학과가 싫어하는 기적의 계산법으로 최종 합격 확률 15.5%! 사실 이 합격률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만, 저와 함께 이 확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초×∞급, 조건 : 칼을 잡아본 적이 없음. 할 줄 아는 음식 : Only 라면(밥도 못함). 이런 분은 이미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초급에 비해 높은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실기를 준비하시면서 꽤 커다란 고통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높은 확률로 손의 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할 줄 아는 음식 : only 라면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유의점을 충분히 인지하셨다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정석 동문이 취득한 한식조리사 자격증. 뽕속까지 한국인이자 미국에 와서도 한식요리를 할 줄 알아야 이곳에서의 삶을 즐길 수 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칼과 친해져야 합니다. 제대로 칼질을 할 수 있다면, 절대 눈을 감고 썰어도 손을 다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칼과 손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 좌표계 관점에서 델타 x 프라임이 델타 x와 같기 때문에...(읍읍). 무른 음식 오이부터 딱딱한 당근까지 제대로 정해진 크기와 두께로 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고기를 자유자재로 결대로 또는 결 반대 방향으로 썰 수 있는 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미국 내에서 한국 음식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 기초를 다지는 느낌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석봉 어머님과 같이 칼로 묘기를 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일주일 정도만 하루에 한시간 (한시간이라고 쓰고 10분) 칼 썰는 방법을 연습하세요.

기본적인 건 이미 전세계에 있는 광통신망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

지만, 상상 칼썰기는 안됩니다. 무조건 깨끗한 도마 위에서 오이와 당근 그리고 고기를 썰는 연습을 해야합니다. 그 날은 삼겹살에 오이 당근 쌈장과 함께하세요. 칼 그까지거 모 대충 썰면 되지 하시면 죄송하지만, 여기서 중도 하차를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Sword 마스터입니까? 그렇다면 이미 80%는 자격증과 가까워지셨습니다. 다음은 규격과 각 재료 손질 방법입니다. 마늘, 파 다지는 법 부터 오징어 손질, 생선 손질, 조그만한 고기를 넓적하게 펼치기, 야채 규격에 맞게 썰는 연습 어느 하나 만족 상태에 이르지 못하기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건 손질의 포인 트입니다. 교과서의 핵심정리 노트와 같은 아주 핵심적 코어들이 존재하기에 이



러한 점을 가슴에 새기면서 손질을 수행해 줍니다.

Ex) 조기 내장 제거를 입으로 또는 아가미로 따주는데, 이 때 어느정도의 force를 가해줘야 생선의 skin이 intact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문을 읽자!

Ex) 솔방울 오징어를 제작할 때, 실금을 넣어주는데, 오징어가 절단되지 않을 적정 수준의 압력 pascal 값은 얼마인가?

이외에도 초×∞급이 가야할 길은 험난한 가시밭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모두 이겨내신다면 적어도 우리에게 장, 설,파,마,후,깨,참이 주어진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도 아주 아주 훌륭한 한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 material (science) master?

사실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제한된 시간 내에 외우신 총 31가지 레시피 중 임의로 주어지는 2개에 대해서 sword master와 material (science) master로

서 배우신 내용을 그대로 펼쳐내시면 100% 합격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무책임하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사실상 글로 이렇게 표현했기에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지만, 칼질 10분 x 7 = 70분 (이지만, 저의 양심 상 60 x 7 = 420분), 재료 손질 영상 시청 = 1시간 (양심 상 3시간), 재료 손질 연습 (after 소드 마스터, 3시간 이상) 하루 만에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하루만에 다하시면 안됩니다. 생각보다 손과 뇌의 정보 불일치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길게 자주 해주시는게 효과적입니다.

한식 조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맛, No!, 절차와 위생, 그리고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는 한국의 절대적 진리에 기초합니다. 정해진 크기에 맞게 재료를 손질하고 정해진 방법대로 시간 내에 예쁘게 플레이팅하여 제출하면 실기도 무난하게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초급: 눈감고 칼질을 두려워하지 않음! + 오징어 먹물을 터뜨려 본적이 있음 (실수가 아니라 손질 잘 해봐서 궁금해서!) + 라면을 진화시킬 수 있음! 초급분들은 크게 걱정하실게 없습니다. 오히려 필기를 걱정하셔야 할 정도로 실기는 유x브 몇번만 자동플레이를 한다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 자격증의 부가가치

자격증보다는 실제로 한식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력이 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외국 친구들에게 그리고 본인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가지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담백하게 얘기하더라도, 한식에서 장,설,파,마,후,깨,참과 기다림과 시간의 미학인 발효까지 포함하면 거의 대부분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적 재료를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 구할 수 없지만 각 재료의 특성을 이해한 기능사라면 미국 자생의 재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한국적인 맛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이 계속 우리의 뿌리가 어딘지를 상기시켜주면서도 보다 더 높은 정서적 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간혹, 민족을 동일한 언어 또는 생김새로 정의하기도 하는데, 저는 동일한 식습관과 태어나서 미각 세포에 각인된 맛이 말로 우리의 근본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스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한, 미국 식재료로 그리고 가끔은 한국에서 공수해온 물건들로 한국적인 맛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한국의 맛에 대한 토론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연락주세요 인스타: Oh\_s\_kitchen).



마음을 잇다  
**SNU 이음장학금**



©SNU Photo Gallery



**SNU 이음장학금**은 선한 인재 장학금의 생활비 지원을 넘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해외 견문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적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장학금입니다 동문분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SNU 이음장학금 프로그램

- 단기 해외 방문 지원(최대 4주/1인 500만원)
- 해외 단기 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원(한 학기/1인 1,500만원)

## SNU 이음장학금 수혜 학생 이야기



### 이음장학금(경영학과)

제 꿈은 기업의 경영문화를 건강하게 바꾸는 컨벤션 기획자가 되는 것입니다. SNU 이음장학금을 통해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기술이 도입된 다양한 국외 행사에 직접 방문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받은 만큼 누군가에게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이음장학금(예의과)

SNU 이음장학금을 통해 중고등학생 때부터 꿈꿔온 해외 자원봉사를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 방문을 해보지 못한 저에게 이런 소중한 기회를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또한 미래에 제가 받은 도움을 또 다른 후배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지금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휴대폰으로 찍어  
[america@snu.ac.kr](mailto:america@snu.ac.kr)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담당자가 참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SNU 이음장학금 간단 참여신청서 [EUM22-01]

성명: \_\_\_\_\_ 연락처: \_\_\_\_\_  
학과(특별과정): \_\_\_\_\_  
약정금액: \_\_\_\_\_  
Pay to the order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서울대학교발전기금 미주재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NJ | 222 Bridge Plaza South Suite 720, Fort Lee, NJ 07024 Tel. +1-212-768-9144 Fax. +1-212-768-4494 E-mail. kenneth@klgroup.cp

LA | 2410 W. James M.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1-213-435-1974 E-mail. america@snu.ac.kr

SEOUL | SNU Research Park Main Building,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Tel. +82-2-871-8004 E-mail. snuf@snu.ac.kr

중신이사 코너

이명선(상대 58) 동문

“후배들에 경영 노하우 전수해줬으면...”



이명선  
상대 58

이명선(상대 58) 동문의 동창회 사랑은 한마디로 ‘생산적’이다. 동창회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줘서다.

이 동문은 맨 먼저 동문들의 ‘네트워킹’을 꼽았다. 미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동문은 어림잡아도 1만 5,000명이 넘는다.

모두 각 분야의 최고 인재들이다. 이들을 네트워킹으로 엮을 수만 있다면 동창회 뿐 아니라 서울대 측으로서도 엄청난 자산이 아닐 수 없다. 언젠가는 동창회가 해야 할 과제라는 것이 이 동문의 생각이다.

다음은 ‘SNU 그룹 엔터프라이즈’(가칭)를 설립하는 것이다. 자신처럼 은퇴한 동문들의 지식과 기술, 경영노하우 등을 활용한다면 후배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며 자신도 기꺼이 시간을 내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 동문은 70년대 중반 ‘Houston Fearless 76’를 인수해 탄탄한 중견회사로 키운 기업인이다. 남가주 캄튼에 소재한 회사는 특수 마이크로 필름과 고속현상기계 제조에 특화된 기업이다. 원래는 1930년대 억만장자 하워드 휴즈가 설립한 유서깊은 회사였으나 1970년대 매물로 나왔다. 부실경영 탓이다.

이 회사에 몸 담고 있었던 이 동문이 회사를 인수했다. 인수금액은 무려 40만 달러.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다. 이 동문이 가진 돈은 달랑 5,000 달러. sba론 등 여기저기서 융자받아 인수에 성공했다. “자리를 잡는데 거의 5년 걸렸지요.” 이 동문의 회고다. 성공비결은 오직 하나. ‘정직’이었다.

“미국에서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정직해야 되요. 그래야 직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CEO가 마이너리티여서 직원들이 처음엔 대면대면 했다. 그러나 회사가 정직하다고 믿게 되자 생산성이 크게 향상됐다는 것.

그의 ‘정직’은 IRS 감사에서도 드러났다. “당신 회사는 앞으로 감사받을 일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IRS로부터 받은 적도 있었다.

이 동문의 미국 정착기는 ‘도전’이 키워드다. 이 동문은 USC에 유학, MBA 과정을 공부했다. 클래스에 25명이 있었는데 거의 모두 공대 출신이었다. ‘메이드 인 USA’가 세계 시장을 석권할 즈음이었어서 미국 엔지니어들의 자부심은 대단했다.

미국인들과 경쟁하기 위해선 ‘공학 배경’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컴퓨터 사이언스에 도전했다.

“정말 공부하기 힘들었어요. 최첨단 학문이어서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끈질긴 집념과 도전 끝에 경영학과 공학 두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낼 수 있었다.

이 동문은 한국에도 기술이전을 해줘 표창을 받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0년대 중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다. 건물의 구조를 알 수 있는 도면이 없어 구조작업에 애를 먹었다. 이 동문이 도면 등 모든 자료를 마이크로필름화 할 수 있는 기기들을 보내줘 이후 한국의 모든 건물들의 도면은 전산화될 수 있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도 적잖은 기여를 했다. 미국에선 자동차를 고속 충돌시켜 이를 촬영, 안전도를 검사하는데 당시 한국에는 이런 기술이 없었다. 이 동문이 자사 제품을 현대 등에 보내줘 해결해 줬다는 것이다. 그 덕분에 한국은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아닙니까. 동문들의 네트워킹은 동창회가 꼭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몇 번이나 이 말을 강조하는 이 동문에게서 동창회에 대한 애정이 듬뿍 묻어났다.



지난 8월 13일 발족 모임을 가진 워싱턴 DC 바둑 동호회.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권정도(치대 63), 정용운(농생대 81), 김용철(공대 71), 이선구(문리대 65), 김기봉(공대 63), 박상근(법대 75), 오인환(문리대 63), 정종욱(문리대 59), 이신규(공대 59).

제 1 회 미주 동창회장배 바둑대회  
대회장 노명호 · 준비위원장 박상근 · 총무 정용운  
워싱턴 DC 동창회가 주관해 진행

워싱턴 DC 바둑동호회가 지난 8월 13일 창립 모임을 가졌다.

이날 박상근 동창회장 변호사 사무실에서 열린 동호회 모임에는 모두 10명의 동문들이 참석,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대국을 겸한 상견례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동문들 가운데 최고단자는 아마 5단급의 이신규(공대 59), 김기봉(공대 63) 동문 등이다. 홍일점 회원인 공순옥(간호대 66) 동문과 최종태(공대 69) 동문은 이날 개인 사정상 참석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모임에선 제 1회 미주 동창회장배 바둑대회에 관심이 쏠렸다. 참석자들은 전국규모의 동문 모임은 처음인 것 같으며 이 같은 대회가 자주 열려 서로 하나가 되는 동창회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한편 제 1회 동창회장배 바둑대회는 내년 6월 제 32차 평의원 회의 일정에 맞춰 열린다. 장소는 아직 미정이다.

대회는 워싱턴 DC 동창회가 주관한다. 이에 따라 대회장은 노명호(공대 61) 미주 동창회장, 준비위원장은 박상근(법대 75) DC 회장이 맡는다. 실무는 정용운(농

생대 81) 총무가 맡아 진행하며 최진석(법대 64 · LA) 동문이 고문을 맡았다.

지난 8월 7일 열린 준비위원회 1차 모임에서는 대회를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눠 치르기로 합의했다. 개인전은 갑조와 을조로 하되 갑조는 아마 1단 이상으로 참가자를 제한했다. 을조는 1단 이하의 기급으로 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준비위원회는 노명호 회장의 승인과 이상강(의대 70) 차기회장의 추진하에 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상근 위원장은 특히 워싱턴을 비롯해 뉴욕, 시카고, 조지아, LA 등 이른바 ‘빅 5’ 지역에 바둑 동호회 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준비위원회 측은 바둑 동호인들을 비롯 임원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창구를 구축해 대회의 상세일정과 경기 진행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준비위원회 2차모임은 9월 18일(일) 오후 9시(동부시간)에 열린다. 이날 모임은 줌으로 열리며 각 지부 동창회장들과 바둑 동호인들의 참석을 바라고 있다.

▲문의: 정용운(571-320-9582)  
최진석(213-321-6428)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차차기회장 후보추천 공고

제18대(2025.7.1. ~ 2027.6.30) 회장 후보

서울대 미주 동창회는 미주 사회에서 활동하는 동문 회원 중 미주동창회와 모교 발전에 기여하실 차차기 회장(제18대 미주 동창회장 · 2025.7.1.~ 2027.6.30) 후보자 추천을 서울대 미주 동창회 경관 및 인선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미주 동창회와 모교 발전을 위한 훌륭한 후보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직전 회장, 현 회장, 차기회장 지역은 제외합니다.

이선구	위원장 신응남 646-523-9606	노명호 회장 626-991-4457	이상강 차기회장 918-616-3386
	정정욱 뉴잉글랜드 401-556-5501	최경선 북가주 408-621-8080	박상근 D.C. 703-447-8175
			황치용 시카고 224-334-1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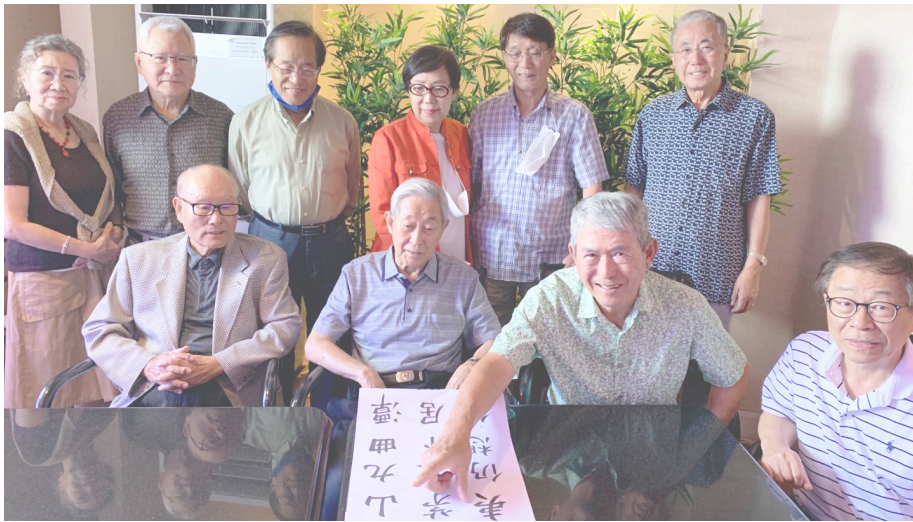
제 18대 회장  
(2025.7.1 ~ 2027.6.30)  
선거일정 및 근거규정

선거일정

근거규정

- 2022년 12월 31일 차차기 회장 추천서 접수 마감
- 인선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후보는 회보 등을 통해 출마 공약을 발표.
- 2023년 6월 제 32차 전국 평의원 정기총회에서 투표로 차차기 회장 선출.

- 근거규정: 서울대 미주 동창회 경관 및 인선위원회 규정
- 차차기 회장 후보는 서울대 미주지역 동창회장을 역임했거나 동창회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동문가운데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회원으로 한다.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최진석(법대 64) 부부, 김병연(공대 68), 라철삼(문리대 64) 부부, 신영찬(의대 63), 박제환(문리대 75), 한효동(공대 58), 정인환(법대 54), 김태운(법대 53).

### 그윽한 묵향에 힐링이 절로 ... 남가주 서예반 재오픈, 작가의 집



서예지도도를 맡고 있는 정인환(법대 54) 동문. 2년여 만에 다시 문을 연 서예반. 매주 화요일 LA 작가의 집에서 열린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잠정 중단됐던 남가주의 서예반이 다시 문을 열었다.

서예반은 그동안 '자산' 정인환(법대 54) 동문의 지도로 수강생들이 크게 늘어났으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2년여 문을 닫았었다.

클래스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가량 LA 한인타운의 '작가의 집'에서 열린다.

정인환 동문은 전미 일본서예공모전, 서울 아시아 미술초대전 등에 출품한 바 있

는 베테랑 서예가다. 수석에도 조예가 깊어 한미수석협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정 동문은 "처음엔 '구양순'체 교본으로 시작해 '천자문'으로 들어갔었으나 코비드 공백기간 때문에 복습과정을 거친 후 천자문을 연습하겠다"고 밝혔다.

한문 서체는 크게 전서·예서·해서·행서·초서 등 다섯가지로 나뉜다. 필수 도구는 화선지와 붓, 먹, 베틀인데 이를 지필묵연 또는 문방사우라고 부른다. 이외에도 종이를 누르는데 쓰이는 서진(또는 문진), 물을 담아두는 연적이 있다.

정 동문은 "서예는 연습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법과 병행해서 정진수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수강생은 "(작가의 집) 동리홀에 들어서면 먹물에서 뿜어나는 그윽한 향기에 힐링이 절로 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서예반 회원은 김태운(법대 53), 한효동(공대 58), 신영찬(의대 63), 박영호(공대 65), 김병연(공대 68), 민일기(약대 69), 조무상(법대 70), 홍선례(음대 70), 진관보(의대 72), 김영태(미대 73), 김인종(농 74) 등이다.

▲시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장소: 작가의 집 동리홀  
2410 James M Wood Blvd., LA

▲문의: 홍선례 213-503-6964

### 'One Art Space' 초대 그룹전 호평 장원경 · 이명규 · 박다애 동문 아티스트

뉴욕의 유명 화랑인 'One Art Space'의 그룹전에 미대 동문인 세 아티스트들이 초청을 받아 출품, 호평을 받았다. 지난 8월 7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전시회의 타이틀은 2D x 3D=Boundless

NYxLA=∞ (2D와 3D의 경계없는)이다.

전시회에는 뉴욕의 저명한 작가들과 함께 장원경 · 이명규 · 박다애 등 70년대 학번의 미대 동문 작가들이 참여했다.



장원경 'Life is'



박다애 'Equivalence 2'



이명규 'Flowers 2022 fired clay'

장원경 동문은 음미과를 졸업하고 롱비치 주립대에서 금속조형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갤러리 큐(도쿄)와 학교재(서울), 토마스 폴 파인 아트(LA) 등지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또한 부산 비엔날레 국제조각 심포지엄, 모산 국제조각 심포지엄 등에 참가했다.

장 동문의 작품은 서울 신촌역사, 부산 암남조각공원, 해운대 센텀시티, 대전 모산미술관 등지에 설치, 소장돼 있다.

이번 전시 작품의 주제는 삶과 세계에 존재하는 두 양극적 요소를 대비, 충돌시켜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합'의 아름다움으로 시각적 작품성을 극대화시켰다.

회화과를 졸업한 박다애 동문은 미국과 한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지에서 11회의 개인전과 백여차례가 넘는 그룹전에 참가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샌피드로에 소재 한

에인젤스 게이트 컬처럴 센터에서 스튜디오 아티스트로 활약하고 있다.

박 동문의 작품에는 자연의 내적 울림을 응시하고, 설명이 아니라 느낌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화면을 단순화시킨다. 핵심적인 색, 구도, 면 등 최소한의 조형요소만 남기며 모든 군더더기는 걷어낸다.

화면은 극도로 단순화 되어 매우 추상적이고 강렬한 느낌을 끌어내는 미니멀적 표현이 된다.

이명규 동문은 조소과를 졸업하고 오티스 파슨스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과 캘리포니아, 와이오밍, 뉴멕시코 등지에서 7회의 개인전과 2인전, 다수의 그룹전에 참가, 활발한 작품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동문은 "컴퓨터와 기계화로 점점삭막해지는 환경에 코비드까지 겹쳐 실제적으로 고립된 현실에 처한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자연의 화사함을 안겨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취재=홍선례(음대 70)



### Dr. 이덕송의 유머 코너

#### 인플레이션

회계사의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다.

아내: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남편: 인플레이션, 응, 그건 예를 들자면 당신 몸매는 36-24-36이었는데 지금은 48-40-48이 되었지. 당신의 모든 것이 전 보다 커졌는데 당신의 가치는 옛날 보다 떨어졌어.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야.  
(의대 54)

### 시카고 미식가 동아리 9월 18일, 그리스 식당

시카고 미식가 동아리 모임이 오는 9월 18일 오후 6시 그리스 레스토랑에서 두번째 모임을 갖는다.

당일 오후 2시 리릭(Lyric) 오페라 하우스에서는 '지붕위의 바이올린(Fiddler on the Roof)'이 공연된다.

유대인 가정의 보수적인 아버지와 다섯 딸의 이야기를 그린 브로드웨이 최고 히트작이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한 번

이상 봤다는 뮤지컬이다.

김승주(간호대 69) 동창 회장은 뮤지컬을 감상하고 모임에 참석한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은 하루가 될 것이라고 추천했다.

▲일시: 9월 18일 오후 6시

▲장소: Athena Greek Restaurants (발레 파킹 가능)  
212 S. Halsted St., #1, Chicago, IL

▲문의: 이준수(224-714-9044)



### 명복을 빕니다

▲이동희(공대 68 · 사진)



지난 7월 24일 타계. 메릴랜드대에서 공학박사학위 취득 후 LA에서 CPA 사무실 운영. 유족은 부인 엔젤라 오와 모친 이귀현 여사.

▲이소연(시카고)

지난 7월 22일 별세. 고인은 이흥미(약대 63 · 변호사) 동문의 부군이다.



지난 7월 23일 열린 미시간 동창회 창립총회에 60여 명의 동문 및 가족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 미시간 창립총회...이광진 동문 회장 인준 슬라이드쇼 축하공연 등 다채롭게 진행돼 디트로이트 한인회장 참석 '이례적'



이광진 회장  
공대 81

이광진(공대 81) 동문이 지난 7월 23일 열린 미시간 동창회 창립총회에서 정식 회장 인준을 받았다.

동문 및 가족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에서 이 동문은 만장일치로 회장에 선출돼 미시간 동창회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날 총회에는 이례적으로 이상웅 디트로이트 한인회장과 윤도승 미시간 문화회관 이사장 등 한인 커뮤니티의 리더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내줬다.

1부 총회는 강신조(공대 62) 동문의 격려사로 시작해 김규일(재무국장), 한영신(기획국장), 임성철(공보국장) 동문 등 임원진의 간단한 업무보고가 있었다.

이호정(총무국장) 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순서는 참석자 중 최고참 선배인 조문희(공대 56) 동문의 건배제의로 막을 올렸다.



왼쪽부터 박예나, 심민정(음대 96), 조영현(음대 95) 동문.



50년대 학번부터 06학번에 이르기까지 50년의 세대차이를 초월해 모두가 동문으로 하나되는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사전 수집된 학창시절 사진과 미시간에서의 생활을 담은 슬라이드가 상영돼 자칫 어색할 수 있는 첫 만남을 자연스럽게 서로의 과거와 현재를 엿보는 즐거운 시간으로 바뀌 놓았다.

신미나(사대 91) 동문이 모교의 역사 및 최신 정보와 관련한 퀴즈를 진행했고 이어 박기완(농생대 86)·김미란(농생대 88) 동문 부부의 자녀 박예나양의 노래, 심민정(음대 96) 동문의 대금연주, 조영현(음대 95) 동문의 이야기 있는 피아노 연주 등 축하 공연이 열려 큰 박수를 받았다.

참석한 동문 모두 기대 이상으로 즐겁고 재밌는 친교의 시간에 만족하며 벌써부터 다음 모임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미시간 동창회는 앞으로 스포츠, 음악 등의 동아리 모임을 통해 친목을 더욱 다질 계획이다.

이광진 회장은 "동창회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을 쏟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단체로 발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kimmi@broad.msu.edu

## 장지혜 · 김택수 동문 초청 D.C. 세미나 10월 4일(화), '현대음악 속 한국문화'

워싱턴 DC 동창회(회장 박상근·법대 75)가 장지혜(음대 94) 박사와 김택수(자연대 99·음대 03) 박사 두 동문을 초청해 가을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10월 4일(화) 오후 8시(동부시간) 줌으로 열린다. 세미나 주제는 '현대음악 속 한국문화'다.

장 동문은 지난 6월 24일 LA에서 열린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 세미나에 초청돼 '음악을 통한 한국문화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연,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줬다.

플로리다 주립대 초빙교수인 장 동문은 인디애나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미국내 유명 뮤직 페스티벌의 초청을 받아 연주와 강연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다.

샌디에고 주립대 작곡과 교수인 김택수 동문은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국제화 학올림피아드에서 입상한 그는 자연대 화학과에 진학했으나 음대로 학사편입해 석사과정까지 마쳤다. 미국에 유학하면서는 인디애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장지혜 동문과는 서울대와 인디애나

대 선·후배 사이다.

김 동문은 지난해 한국인 최초로 발로우 상(Barrow Prize)을 수상해 작곡계에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됐다.



### 10월 15일 가족 피크닉

워싱턴 DC 가족 피크닉이 10월 15일(토) 오전 11시 세네카 크릭 파크내 퍼빌리언 도(Pavilion Doe)에서 열린다.

바베큐 파티도 겸한 이날 피크닉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과 장기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문의: snuwashington@gmail.com

### '샤로수' 모임 오인환 동문 자택

'샤로수' 동문 모임이 오는 9월 10일(토) 오후 1시 노스 포토맥의 오인환(문리대 63) 동문 자택에서 열린다. '샤로수'는 주로 90년대 이후 학번의 젊은 동문들의 모임이다.

지난 8월 14일에는 이주희(음대 89·동창회 총무) 동문 자택에서 열렸다.

## 뉴잉글랜드 창립 25주년 기념식 9월 24일, 문집 '진리의 빛' 발간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임영호·공대 72)는 오는 9월 24일(토) 창립 25주년 및 기념문집 발간 축하 행사를 갖는다.

이날 오전 11시 개막하는 행사는 리셉션에 이어, 캐시 바, 기념식, 연주회 및 풀코스 오찬 순서로 진행된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기념문집 '진리의 빛' 발간이다. 뉴잉글랜드 동창회의 지난 25년 발자취와 동문들의 기고를 담았다.

▲회비: 1인당 20 달러.

▲장소: 세라톤 보스턴 니드햄 호텔  
100 Cabot St., Needham



창립 25주년 기념문집 '진리의 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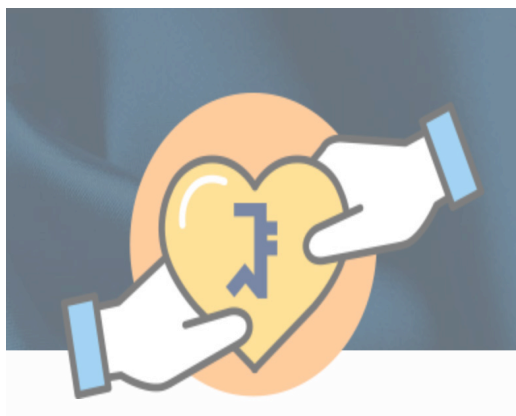
▲문의: 임영호(978-490-0118) 김정선(617-780-7205) 이의인(339-215-9027) 장수인(978-821-9434) 신진우(617-901-9251)

### 가을 아우회 개최

10월 1일, 어번데일 뉴잉글랜드 동창회의 가을 아우회가 10월 1일(토) 오전 11시 어번데일 코브(104 W. Pine St., Auburndale)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1인당 20 달러. 포닥을 비롯한 학생들은 무료다.

▲문의 및 RSVP: snuaane@gmail.com



## 미주 동창회는 동문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동문님이 납부해주신 회비와 후원금은 동창회 활성화 및 동창회보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창회보는 이제 월간발행부수 1만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목표를 조기에 이룰 수 있도록 동문님들의 지속적인 도움을 바랍니다. <회비 및 후원금 납부양식=27면>



〈뉴욕〉 신용남(윗줄 왼쪽에서 두 번째) 15대 미주 동창회장을 비롯한 뉴욕 지부 평의원들이 포즈를 취했다.



〈북가주〉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최승희 전 북가주 동창회 부회장 부부, 오세정 총장, 김종섭 회장, 노명호 미주 동창회장, 최경선 평의원, 두번째 왼쪽부터 최성희 (Mrs. 최경선), 강정수 동문 부부, 윤성희 동문 부부, 임승쾌 전 북가주 동창회장 부부.

## 여전히 화젯거리~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정 총장으로부터 총장패를 받고 있는 신용남 전 미주 동창회장.

지난 6월 24~26일 LA에서 열린 제 31차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는 풍성한 화젯거리를 낳았다. 예년과 달리 오세정 총장과 김종섭 총동창회장 등이 참석해 디너 모임마다 성황을 이뤘다.

행사가 끝난 후 그랜드 캐년 등 관광여행을 떠난 동문들은 단체 특방을 만들어 지금도 서로 소통하며 안부를 묻고 있다. 지난 7월호에 이어 이번 호에도 단체 기념사진과 시상식 장면 등을 실는다.

- 편집자.



“감사합니다” 강정수(문리대 61) 동문이 김종섭 총동창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다.



오세정 총장으로부터 총장패를 받고 있는 박종수(수의대 58) 동문.



〈소음악회〉 최유나(음대 13, 첼로) 동문과 조숙행(오보에)의 연주.



윤상래(수의대 61) 제 14대 미주 동창회장 부부.



오인환(문리대 63) 제 12대 미주 동창회장 부부.



오흥조(치대 56) 제 7대 미주 동창회장 부부.



〈총장 디너〉 오세정 총장 디너에 20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박 변의 영화 내멋대로 보기

## The Quarry(채석장)

### 속죄와 구원(?)을 그렸는데도 전혀 종교적이지 않은 부커상 수상 소설이 원전 ... 제작비 고작 400만불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전혀 내용도 모르고, 당연히 그래서 기대도 않고 보게 되는 영화가 있다. 그런데 가끔씩 좋은 영화를 건진다. 이 영화도 심심풀이로 보기 시작했는데 의외로 보는 사람을 끌어 당기는 영화다.

한 영혼의 속죄와 구원(?)을 그린 영화인데, 이렇게 말하면 독자분들 중에서는 종교적일 것이라 짐작하고 손사래를 치면서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것이다.

내가 그런 부류의 사람 아니까. 하지만 이 영화는 전혀 종교적이지 않고, 메시지를 주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좋은 영화다.

새 부임지를 찾아가는 어떤 목사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한 부랑자를 발견한다. 밥을 사 준 후 채석장에서 휴식하면서 설교하던 설교를 하는데.

화가 난 이 부랑자, 자신은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목사를 한대 쳤는데 그냥 죽어 버린다. 얼결에 시체를 묻은 그는 그 목사로 위장하기로 한다.

그가 부임하는 곳은 텍사스 서부의 조그마한 시골. 라티노가 주류이고 언어도 스페니시가 더 잘 통용되는 곳. 너무나 피곤했던 그는 밴에서 물건들을 꺼내지도 않고 그냥 잠들어 버린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밴에 있던 물건들은 다 도둑질을 당해 없다. 그에게는 오히려 잘 된 일일 것이다. 신분은 속이고 있으니 신분증이랑 모든 것이 없는 게 더 나을 테니.

마을 보안관이 도난 신고를 가짜 목사

로 부터 받는다.

보안관이 그를 보니 어딘가 본 듯한 얼굴. 잠시 보안관이 자리를 뜨는데, 그가 떠난 자리의 뒷벽을 보니 현상 수배자들 전단이 붙여져 있다.

그 중에는 살인 및 방화로 수배 중인, 콧수염을 기른 가짜 목사의 전단도 있다.

들은대로 의식도 능숙하게, 기도도 유창하게 할까? 천만의 말씀이다. 그가 하는 것이라고는, 영어도 못 알아 듣는 몇 안 되는 신도들에게 그냥 성경을 읽어 주는 것 뿐이다. 그런데, 이 독특한 스타일의 목회 때문에 오히려 신도 수가 증가한다. 하지만 이 주인공은 도망자 신세이니

는 사촌간이다. 채석장 부근에서 마약 재배도 하는 이들. 여기에서 진짜 목사의 시체가 발견되며 형은 체포되어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다 도주하면서, 가짜 목사가 타고 있던 밴 안으로 들어 오게 되고... 그러는 사이 보안관은 벽에 붙여져 있던 현상 전단지들 중 한장이 찢겨져 나간 것을 발견하면서 서서히 가짜 목사에게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잔잔하고 지루한 영화일 수도 있다. 별로 대단한 사건이 안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다. 제작비가 고작 400만 달러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개봉된 영화치고 이렇게 저 예산 영화는 처음 보는 것 같다. 대단히 돈 쓸만한 장면이 없으니 그 이상 제작비 들어갈 일도 없을 듯 하지만.

그러나 영화가 계속될 수록 관객들을 몰입하게 하는 매력이다. 내가 서두에 구원 다음에 물음표를 붙인 것은 과연 주인공이 참회는 하는데 구원은 얻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어서다.

세속적으로 볼 때 죽음은 구원이 아니지 않은가? 오히려 구원보다 참담한 죽음을 보여 줌으로써 결국 짓궂은 치러야 한다는 메시지인가?

어딘가 영화가 괜찮다 했더니 나의 지론을 또 한번 확인해 준다. 훌륭한 영화는 훌륭한 소설이 원전이라는 것을. 이 영화 역시, Booker상을 받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Damon Galgut이라는 작가의 동명의 소설이 원전이다.

박준창(인문대 79·변호사)



영화는 채석장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목사행세를 하는 주인공의 연기가 관객들을 몰입시키는 매력이 있다.

### 할리우드 명배우의 연기 앙상블 필립 세이모어 호프만의 유작 첩보물의 거장 존 르 카레 원작

그는 재빨리 그 전단을 떼어 자기 주머니에 넣는다.

이 순간 관객들은 영화의 주인공이니, 분명 살인 누명을 쓰고 쫓기는 신세일 것이라고 지레 짐작한다. 일단 주인공에게 동정을 느끼게 되면서, 이 친구가 어떻게 목사 행세를 할까 걱정도 되고 궁금해진다.

청산유수 언변으로 설교도 하고, 배워

삶이 편할 리가 없다. 그는 언제나 말이 없고, 악몽에 시달리며, 인상을 잔뜩 구긴 채로, 인생을 다 살은 듯한 표정을 하고 있다. 이 역을 하는 연기자를 기가 막히게 잘 캐스팅 했는데, 미국 배우 Shea Whigham이 고뇌하는 가짜 목사 역으로 딱이다.

그런데, 밴에서 물건을 훔친 자들은 라티노 형제들인데, 보안관의 애인 Celia와

### 원고 모집합니다

-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snuausa30@gmail.com 로 보내주세요.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손녀가 심한 어리광 증세 보이는데  
가부장적 환경에선 우울증, 틱장애**



**Q.** 안녕하세요. 제 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직도 심한 어리광(tantrum)으로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만해도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고성을 지르고 가구에 주먹질을 해대 옆집 사람들이 혹시 아동학대가 아닌가 의심할 정도입니다.

그동안 분노조절요법(anger management therapy)도 받았는데 별 효과가 없네요. 동문 중에 도움을 주실 분이 계신가요. 부탁드립니다. (공대 64)

**A.** 아동의 행동문제는 일단 전문가의 종합적 진단을 거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뒤 행동문제가 지나치지 않은 경우에는 비약물 요법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약물요법을 병행하게 됩니다.

행동문제는 문화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적 가부장적 양육분위기에서는 불안, 우울, 틱 장애 등 내면화 증상(internalizing symptoms)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서양적인,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자라는 문화에서는 분노발작, 반항적 거부적 행동 등의 외면화 증상(externalizing symptoms)을 더 많이 보입니다.

외동 아이나 중요하게 취급받고 자라는 아이일수록 자기에 대한 개념과 자기 주장이 강해 집이나 학교에서 어른들의 권위나 제재에 별로 효과가 없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행동문제 저변에 생물학적으로 감정조절장애/양극성 장애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우울증 등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쓸 수 있는 약물로는 감정, 분노조절 역할에 상당히 효과가 좋은 이세대 항정신증약물(second generation or atypical antipsychotics)이나 감정 조절제(mood stabilizers) 등이 일차적으로 쓰일 것이고, 주의력 결핍장애가 있는 경우 중추신경 자극제(stimulants) 등이 쓰일 수 있고, 또 드물게는 항우울제들이 선택될 수 있겠지만 어린 나이에 나타나는 우울증일수록 길게 보면 감정조절/양극성 장애의 양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양극성 장애의 우울기에 해당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특히 아주 극심한 행동문제의 경우 감정조절 장애와 주의력 결핍장애가 동시에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 일차적으로 감정조절 장애를 먼저 치료하고 이차적으로 주의력 결핍 장애 문제를 다뤄야 최적의 효과를 보게 됩니다.

▲도움말 주신분:

김자성(의대 77) 정신과 원장  
(213) 797-5953  
dr.jasungkim@gmail.com

### 한국재산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183일 이상 살면 한국 거주자

**Q.** 동문들 중에 유학과 직장을 갖고 살다가 미국 시민권자가 된 분이 많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인데, 특히 아직도 한국에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있을 때는 대략 한국법과 미국법에 다 저축이 돼 이 두나라의 법을 어느 정도는 두루두루 알아야하는 상황에 있음을 느낍니다.

특히 또 비거주자나 거주자냐에 따라 한국의 적용법이 다른데 그 구분도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 이에 대해 기본적인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한국법에는 세법상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3가지 조건 중 한가지 즉 미국시민이면 어디에 살든지 자동적으로 미국 거주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과 비교됩니다.

만약 한국계 미 시민권자인 A가 65세 이후 한국 국적을 회복해 이중국적자가 되는데, 만약 A가 매년 한국에 4달, 미국에 8달 거주한다면 한국세법상 A는 한국 거주자인지요?

아니면 한국국적이 있더라도, 한국에 183일 미만 거주하였기에 한국세법상 비거주자인지요?

이 구분에 따라 A의 한국내 양도세, 상속세와 증여세에 영향을 주기에, 기본적인 질문이겠지만 물어봅니다. (농생대 78)

**A.**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에 4달

살고 미국에 8달 살면 미국 거주자가 됩니다. 1년에 183일 이상 거주하는 곳의 거주자가 됩니다.

국적과 상관 없이 1년중 한국에 더 오래 살면 한국 거주자이고 미국에 더 오래 살면 미국 거주자가 됩니다.

한국 부동산에 관해서는 소유자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고 해도 한국세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이나 증여시 한국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미국은 1인당 1,158만 달러까지 상속,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한국은 국내 거주자에 한해 일괄공제 5억,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에서 30억까지만 공제해줍니다.

한국재산과 관련해선 필자가 2021년 12월호와 2022년 1월호 2회에 걸쳐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snuaa.org를 누르신 다음 news를 클릭하시면 지난 회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움말 주신 분=이종건(경영대 84) 변호사, 한미국제법률사무소 대표 (213) 787-3107

**앰블런스 요금이 수천달러 된다는데  
메디케어 있으면 파트 B가 커버해줘**

**Q.**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서 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앰블런스를 부르면 비용이 엄청 비싸다고 해서 아내가 운전을 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911로 앰블런스를 부르면 대체 요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문리대 56)

**A.** 한인들은 급한 상황에서도 앰블런스 부르기를 꺼려 합니다. '수천 달러나 한다는데...' 선입견이 있는 탓입니다.

정부통계에 따르면 전국평균이 300~2,300 달러나 됩니다. 3~5마일 이용해도 1,000 달러가 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같은 가격은 앰블런스 회사가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만 65세가 넘어 메디케어가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메디케어 파트 B가 앰블런스를 커버합니다. 메디케어는 심지어 구급 헬기도 커버해 줍니다. 앰블런스 접근이 어려운 경우 헬기가 투입되지요.

앰블런스는 비응급상황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침대에 누워있어야 하는 환자는 일반 차량으로 병원에 가기 어려운데 이 같은 경우 메디케어가 앰블런스를 커버합니다.

메디케어가 있다면 앰블런스 이용을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겠지요. 위급한 경우 돈 걱정 하지 마시고 앰블런스를 부르도록 하십시오.

▲도움말 주신 분=동창회보 편집실

### 알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전문인들의 도움을 받아 동문님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면입니다. 세금 부동산 건강 법률 낚시 목공예 등 실생활이나 취미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망라합니다.

프라이머시가 존중되는 만큼 익명으로 문의해도 됩니다. 웹사이트(<https://snuaa.org>)의 'Questions?'에 문의하셔도 되고 이메일(snuaausa30@gmail.com)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동문님들의 많은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 미주 동창회 웹사이트 확 바뀌었습니다

미주 동창회 웹사이트([www.snuaa.org](http://www.snuaa.org))를 새로 단장했습니다. 정보 접근성과 사용자 편의성 등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했고 동시에 디자인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브레이킹 뉴스'를 비롯해 각종 공지사항이 소개됩니다. 동창회보의 1면 기사가 사진과 함께 화려하게 장식됩니다. 미주 동창회가 주관·진행하는 주요 사업과 매달 열리는 포럼 등이 소개돼 홈페이지만 봐도 동창회의 활동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뉴스를 보강한 것이 눈에 띕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발행된 동창회보를 연도와 월별로 읽을 수 있도록 pdf 파일을 첨부해 놨습니다. '종이'보다는 '디지털'에 더 익숙한 세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확 바뀐 snuaa.org에 동문들의 많은 관심과 접속을 바랍니다.

## “진정한 실패는 도전하지 않는 겁니다” 임소영(간호대 87) 동문의 암벽등반 예찬기 데블스 타워 완등 ... 기술 익히면 안전한 ‘익스트림 스포츠’

몇개월전부터 여성 동문의 암벽등반을 특집으로 꾸밀 생각으로 각 지부 동창회에 문의를 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여성 클라이머는 찾아낼 수 없었다. 심지어 모교 산악반에도 연락을 취해 봤지만 회신은 ‘죄송합니다’였다. 포기할 즈음 뜻밖에도 동문 한 분이 ‘시애틀에 여자 후배가 바위를 탄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이게 웬 황재인가 싶어 곧바로 전화번호를 꼭꼭 눌렀다. “아, 저 내일 인천행 비행기를 타고. 큰조가 곁 혼식이 있거든요. 어찌지요.” 8월호 마감이 가까워 오는데... 난감했다.

“그럼 질문지를 이메일로 보낼테니 비행기에서 써주시면 안될까요?” 임소영(간호대 87) 동문은 클라이머 답게 대답도 시원시원했다. “예, 10시간 동안 쉬엄쉬엄 답을 채워가겠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이메일을 체크했다. 세상에~. 벌써 이메일이 도착해 있었다. 열대여섯 가지 질문사항에 빼곡하게 답을 써서 보내온 것이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코비드 검사까지 마치고 동생네 집으로가는 전철 안에서 이 글을 보냅니다.” 임 동문과의 이메일 인터뷰는 이렇게 진행됐다. - 편집자.

**Q** 혹시 가족들은 임 동문이 암벽등반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A** “엄마는 모르세요. 충격을 받으실까 봐 쉬워해요. 오십도 넘는 딸이 미국가서 험한 바위를 탄다고 하면 아마 기절초풍하실 거예요.”

**Q** 운동에 소질이 있나봐요.

**A** “달리기나 등산 등 맨몸으로 하는 건 좋아했어요. 대학 1학년때 관악사 사생 체육대회에서 여학생부 단축 마라톤에서 2위에 입상했어요. 마라톤 코스는 관악 캠퍼스 순환도로를 두바퀴 돌았던 걸로 기억해요.”

임 동문은 핫요가에 빠져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요가 스튜디오에 출근한 적도 있었다. 소아심장과 수술실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서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을 끝내고 요가 스튜디오에 들러 몸을 스트레칭하면 하루의 피로가 다 날라간다고 했다. 이때 쌓은 유연성이 암벽등반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Q** 암벽등반은 ‘익스트림 스포츠’라는 데... 겁이 없는 성격인가요?

**A** “원래 놀이 공원에 가면 롤러코스터 바이킹 등 높이 올라갔다 급강하하는 기구를 즐겼습니다. 암벽을 타고 오르는 것보다 ‘라펠’하는게 좋아 클라이밍을 계속하는 거 같아요.”

라펠(rappel)은 등반할 때 가파른 절벽을 고정된 로프에 의지해 미끄러져 내려오는 하강 방법이다.

**Q** 어떻게 클라이밍을 하게 됐나요?

**A** “한 번은 워싱턴주에 있는 마운트 세인트 헬렌스(8,363 피트 · 2,550m)에 올랐어요. 크램폰을 신고 아이스 액스가 필요한 마운티어링이었지요. 처음으로 높은 산에 오르는 거라 겁도 났지만 한편으론 신나기도 했어요. 일행 중 한 분이 클라이밍의 기본 기술을 익히면 고산 오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서 당장 암벽등반을 시작했습니다. 더 높은 산에 오르고 싶어서요.”

크램폰(crampons)은 등산화 밑창에 부착해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금속제 장비. 아이스 액스는 빙벽등반에 필수인 얼음 깨는 도끼다.

**Q** 주로 어디서 클라이밍을 하나요?

**A** “워싱턴주에 있는 암벽코스를 갑니다. 인텍스 월, 레벤워스 캐슬락, 노스캐스케이드의 리버티벨, 아나코타스 마운



와이오밍주의 데블스 타워 등반. 깎아지른 바위를 타고 정상에 오르면 그 쾌감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트 얼리, 밴티지 등 락 클라이밍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들이지요.”

**Q**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인상 깊었던 곳은?

**A** “당연히 와이오밍의 데블스 타워(Devils Tower)이지요. 평원 위에 하늘을 찌를듯한 기세로 우뚝 솟아있는 바위 산입니다. 화산이 폭발해 생성된 곳으로 바위 단면의 형태가 육각형 내지 삼각형으로 긴 기둥모양을 이루고 있어요. 주위에 높은 언덕이나 산이 없어 치솟은 품이 아주 위압적입니다. 멀리서 바라봐도 웅혼하고 장엄해요.”

기둥을 여러가지 병렬로 붙여서 세운듯한 바위를 타고 꼭대기까지 오르는데 어찌나 미끄럽던지 마치 참기름을 발라놓은 듯 했어요.”

데블스 타워는 미국 최초로 내셔널 모뉴먼트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이곳서 스티븐 스필버그가 ‘Close Encounters of the Third Kind’라는 공상과학 영화도 찍었다. 바닥에서 정상까지의 높이는 무려 264m.

“기록에 따르면 1937년 이후 5,000여 명의 클라이머들이 완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는 8피치 루트를 따라 올랐어요. 지금 생각해도 짜릿하고 내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언젠가는 클라이머들의 로망인 엘 캐피탄(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수직절벽을 오르고 싶어요.”

**Q** 레인저에게 사전 신고해야 하나요?

**A** “미국에는 암벽등반 루트를 만들어 놓은 곳이 많아요. 볼트를 설치해놔서 그 곳에 퀵드로우를 걸고 안전하게 올라가고 또 하강하는 장치를 설치해 누구나 클라이밍을 즐길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내 암벽을 등반하려면 꼭 신고를 해야 해요. 기록을 해둬야 조난을 당했을 때 레인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데블스 타워 등반 때 로프의 매듭이 바위에 끼어 그냥 버리고 왔는데 나중에 레인저가 로프를 집어까지 배송해줘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집주소를 남겨놓은 덕분이지요.”

**Q** 에피소드도 적지 않겠습니다.

**A** “처음 아주 기본적인 기술만 배운 후 난이도 5.8의 캐슬락(레벤워스)에 올랐을 때 너무 무서워 암벽에 딱 붙어 있었어요. 옆에 있던 청년에게 ‘내가 집에 가면 당장 모든 클라이밍 기어들을 처분하고 말겠다’고 했더니 ‘내가 장담하건대 당신은 계속(바위를) 타게 될 겁니다’ 하길래 웃어넘겼어요. 그런데 그 젊은이 말이 옳았어요. 한번 타고 나니 또 가고

싶고 자주 오르고 싶어 클라이밍이야말로 중독성이 강한 스포츠란 걸 알게 됐습니다.

또 한번은 로프를 놓쳐 고립된 적이 있었어요. ‘줄 내려주세요’ 수도 없이 외쳤건만 먼저 올라간 분들이 아무 반응이 없어 체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동아 줄’이 내려온 거예요. 이제 살았다 싶어 얼마나 고맙는지.”

**Q** 평소 등반 메이트가 있나요?

**A** “물론이예요. 프리 솔로 등반이 아닌 이상 반드시 파트너가 있어야 합니다. 로프를 잡아주는 분의 빌레이(belay, 암벽등반에서 동행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로프 조작 기술)를 전적으로 믿어야 해요. 암벽등반은 신뢰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부가 커플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Q** 어떻게 배울 수 있나요?

**A** “산악회에 가입해도 되고 인도어 클라이밍 집에 가면 초보자를 위한 클래스가 많아요. 로프 매는 법, 하니스 차는 법, 내려오는 법 등을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쉬운 루트부터 시작해서 난이도 높은 루트를 도전하면 되요.”

**Q** 누구나 할 수 있는 스포츠인가요. 나 이제한이라든지...

**A** “나와 같이 등반하시는 분 중 60대 중반 여성이 있는데 일주일에 최소 세 번은 실내 암장에서 연습하고 한 번은 야외 암벽등반을 한다고해요.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져 어떻게 이걸 하나 싶지만 기술을 익히면 요령이 생겨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Q** 클라이밍이 어떤 점에서 좋은가요.

**A** “안간힘을 써서 바위에 매달릴 때는 꼭 죽을 것만 같지요. 그러나 한발 한발 올라 꼭대기에 섰을 때 그 성취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몸에 매단 로프 하나 믿고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지만 빌레이를 믿고 차분히 디딜 곳을 찾고 몸을 일으켜 올릴 때 그 쾌감이 상당합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게 느껴져요.”

클라이밍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스포츠예요. 진정한 실패는 도전하지 않는 겁니다.”

임 동문은 암벽등반에 입문하고 싶은 동문들은 언제라도 연락해달라며 이메일 주소(sylim214@gmail.com)를 남겼다.



**김해인**  
인문대 85  
번호사

지난 6월14일 방탄소년단(BTS)이 데뷔 9주년을 맞아 ‘단체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전세계 BTS 팬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BTS의 소속사는 주가가 폭락했다. 프루프 음반을 발표한 이후 그룹 차원의 음악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개인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BTS는 우연히도 지난 5월31일 백악관 방문을 끝으로 미국내 공식 활동을 마친 다음에 이렇게 단체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해체는 아니지만, 당분간 전 멤버가 함께 활동하는 무대는 쉬겠다는 것인데 그 잠정 휴식 원인은 ‘개인의 성장’을 꼽았다. 지친 상태라고 털어놓은 BTS도 요즘 유행인 워라벨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이 필요

한 것이다. 이렇게 지쳤던 BTS를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 불러 아시아 증오범죄 중단에 이용했다. 바이든은 BTS 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신예 팝스타 올리비아 로드리고를 지난해 7월 백악관으로 초청한 바 있다. 요즘 거의 매일처럼 충격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연 바이든 대통령은 BTS가 방탄(bulletproof)의 준말이라는 점을 알고 있을까? BTS의 팬이라면 당연히 아시아 증오 범죄에 가담하지 않을 테고 아시아 증오범죄를 저지르는 백인이나 흑인이 BTS가 백악관에 초대받았다고 범죄를 중단할지 의문이다. BTS 보다는 아시아 혐오 랩을 많이 부른 흑인 래퍼나 백인 보수집단이 좋아하는 컨트리 가수가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 BTS는 지난해 9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76차 유엔 총회에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연설하는 등 문재인 전 정권에서도 자주 차출(?)됐다. 그동안 BTS는 아시아 증오범죄 뿐만 아니라 블랙 라이브스 매터 (BLM)에 대해서도 지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난 2020년 10월 BTS는 BLM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BTS가 기부한 기금이 유용됐을 수도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28일자로 뉴욕타임스는 BLM의 서 메이저 페이지가 후원자들의 성금을 고급 양복과 주택 등을 구입하는 데 유용해서 FBI에 의해 체포

## 대통령들과 BTS

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BTS가 기부한 기금이 유용됐을 수도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28일자로 뉴욕타임스는 BLM의 서 메이저 페이지가 후원자들의 성금을 고급 양복과 주택 등을 구입하는 데 유용해서 FBI에 의해 체포



된 후 우편 사기 및 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지난 4월5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BLM 지도부가 기부금 600만달러를 유용해 말리부에 호화 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비밀로 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저택은 BLM이 2020년 10월 후원자로부터 6650만

달러를 받은 지 2주 후에 BLM 공동 설립자 인 패트리스 콜로스와 배우자인 자야나 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재무 매니저가 매입했다. BTS는 이런 사실들과 BLM 운동을 지지하던 많은 한인들이 BLM운동의 경찰예산 감축도 지지했다가 아시아 증오범죄를 당하니까 경찰력 강화를 요구하면서 BLM 운동에서 멀어진 사실도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지난 6월 19일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연방 공휴일로 지정한 노예 해방일인 준틴스데이(Juneteenth Day)다. 1980년 텍사스주가 처음으로 공휴일로 지정한 이래 현재 47개 주와 워싱턴 DC가 기념하고 있고 BLM 이후 준틴스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주가 급격히 늘었다. 연말연시와 5~9월처럼 휴일들이 연달아 있는 기간에는 매년 한인 고용주들의 질문들이 빗발친다. 즉, 휴일에도 근무를 시킬 수 있는 지 여부와 휴일에 일 시키면 오버타임을 지불해야 하는 지 여부다. 휴일에 근무 시킬 수 있고 오버타임 지불할 필요없다고 늘 같은 답을 주지만 올해는 그래야 하는 휴일이 하나 더 늘었다.



**서량**  
의대 63

“도공은 도공과 원한을 맺고, 공예사는 공예사를, 거지는 거지를, 시인은 시인을 시샘한다.” - 헤시오도스(Hesiodos, 기원 전 8세기) 맞는 말이다. 내가 빌 게이츠를 시샘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정신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그와 경쟁의식을 느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조지가 팽강을 부린다. 전날 롤랜드가 극심한 난동을 피웠던 일이 부러웠다고 말한다. 여럿이 뛰어들어대고 주사를 놓는 병동 직원들의 관심을 저도 받고 싶다는 것이다. 조지와 롤랜드는 썩 좋은 사이가 아니다. 간간 서로 트집을 잡고 주먹다짐도 한다. 그들의 불행은 시기와 질투에서 출발한다.

신데렐라의 계모와 의붓자매는 차갑고 모질고 악질적이다. 콩쥐팥쥐의 팥쥐도 저질의 극치다. 유교의 칠거지악, 가톨릭의 7개 대죄(Seven Deadly Sins)에서도 질투와 시샘이 두각을 나타낸다. 아담과 이브의 아들, 카인과 아벨은 어떠했는가. 아훼게서 곡식을 예물로 바친 카인보다 양떼 가운데서도 ‘말배의 기름기’를 골라 바친 아벨의 예물을 더 반기셨다는 기록은 불가사의한데가 있다. 카인은 질투에 몸을 떨며 동생 아벨을 데리고 가서 돌로 때려 죽인다. 시샘당하는 일은 공격받는 일이다. 겸손의 미덕은 시기의 표적을 피하기 위함이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모든 수상자들이 나열하는 ‘Thank you!’의 연발은 자신의 공을 남의 은덕으로 대치하는 작업이다.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받는 사람들 사이에 기쁨과 환희가 넘쳐 흐르고 질투어린 표정은 어디에

## 시샘, 우리들의 어두운 본성



도 없다. ‘인간본성의 법칙’이라는 타이틀로 번역된 로버트 그린의 저서 “The Laws of Human Nature(2018)”를 탐독한다. 저자 그린은 인간의 본성 중 나르시시즘을 위시한 여러 어두운 면을 가차없이 파헤친다. 우리 모두가 얼마나 허술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인지! 우리는 누구나 인정받고 남들의 관심사가 되고 싶다. SNS에 웃고 있는 프로필 사진, 다음어진 글, 경치, 꽃, 명화, 좋은 접시에 담긴 음식을 보라. 당신도 나도 부지부식간 부러운 마음이 들지 않는가. 그린은 우리가 시샘으로 괴로울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나보다 잘난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나보다 안 잘난 사람을 생각하며 위안을 받는 디펜스가 통할 때가 많다. 남의 우수성을 본보기로 삼아 자기를

발전시키고 승화하는 아주 훌륭한 방법도 있다.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상대에게 심리적으로 더 가깝게 접근하는 기법도 유효하다. 부러운 여건과 상황은 그의 일부 분일 뿐, 잘 보면 그가 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깨달음에서 측은지심이 솟고 모종의 공감(empathy) 현상이 일어나면서 시샘이 사라진다. 오래 전 ‘envy’가 ‘envision’과 말의 뿌리가 같다고 말한 적이 있지만 이제 그와 달리 ‘envy’가 ‘in’과 ‘vie’(경쟁하다)가 합쳐진 단어라는 생각이 굳어진다. ‘vie’는 16세기경 노름에서 상대방에게 도전한다는 뜻이었고, 이 말은 또 ‘invite’(초대하다)와 같은 어원이라는 사실이 흥미롭다. 초대는 응당 도전의식을 겸비한다. 스포츠맨 정신은 건전한 도전과 다툼이다. 시기심은 동종 경기에서만 발생한다. 정치인은 권투 선수를 시샘하지 않고 정치가를 시기한다. 국가는 국가를, 종교는 종교를 선망하고 질투한다. 저급한 이념이 월등한 이념을 음모양으로 물어뜯는다.



김숙자  
문리대 64

## 서울 1964년 봄

그해 봄은 유난히도 추웠다. 연초에 입학시험 때부터 그랬다. 너무나 추워서 시험장 바깥 마당에 장작불이 피워졌었다. 국어와 수학이 기막히게 어려워 그냥 시험장을 뛰쳐나가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불을 쪼며 기다리고 계신 바람에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그때 참기를 참 잘했다. 그렇지 않았으면 가슴마다 진리탐구의 열망을 품고 모여든 인재 친구들을 어디서 만났으랴!

그러나 우리의 대학 생활은 불행했다. 입학식을 끝내자마자 그 유명한 '3·24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터지며 매일매일 휴강이 계속되더니, 급기야 6월 3일에 강제로 교문이 닫혀 버렸다. 그날로 방학이 시작돼 장장 3개월간 학교라고는 문턱에도 가지 못하고 집안에 처박혀 있어야 했다.

그런 와중에 문리과 대학 신문인 '새 세대'의 기자마저 되지 않았다면 정말 대학 생활이 무의미할 뻔 했었다. '새 세대'는 당시의 통제 체제 아래서도 저항적 성향을 견지했었고 그래서 특하면 신문 발행이 지연되거나 취소되곤 했었다.

어느날 아침 휴강때 편집실로 가니 한 쪽벽 가득히 시꺼먼 벽화가 그려있었는데 4학년인 김지하의 작품이라고 했다. 누군가 급히 뛰어와 하얀 페인트로 그림을 덧씌워 지워버렸지만, 피카소의 '게르니카'에 필적할 만했던 그 그림은 지금도 눈에 선하게 기억속에 새겨져 있다.

그런 속에서도 5월 말에는 합창단의 음악회가 열렸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들을 60년이 다 되도록 가끔씩 흥얼거리다 보면 그 시절이 꼭 암담하기만 했던 세월은 아니었지 하며 작은 위안을 얻기도 한다.

그렇다고 항상 맹탕으로 공부라고는 안하고 지냈던 것은 아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강의, 잊을 수 없는 교수님들이 많이 있다.

강신항 교수님의 문장강화시간이 특히 생각한다.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을 읽고 남학생은 제롬이 되어 알리사에게, 여학생은 알리사로서 제롬에게 편지를 써 내라는 과제를 주셨었다. 교수님은 내 글 끝에 붉은 펜글씨로 "이렇게 잘 쓴 글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다.

그 원고를 들고 '새 세대'로 달려갔다. 마침 문예면 특집으로 기자들의 글이 실리게 되어 나의 글도 거기에 포함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누구나 다 그런 정도의 칭찬을 받았을텐데 나만 그런줄 알고 우쭐했던 것이 아닐까 싶어 얼굴이 화끈거리면서도 웃음이 나온다.

이처럼 교수님의 강의는 밤이 새도록 듣고 싶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춘원이나 이상의 이야기를 어찌면 그리도 재미있게 하시던지! 돌연한 방학으로 중단된 그 강의를 지금도 그립다.

학교 교문앞 '세느강' 다리위에는 책 몇십권을 바닥에 늘어놓고 파는 아저씨가 있었다. 헤르만 헤세의 '황야의 늑대'를 사 들고 교정의 벤치에 가서 막 읽기 시작하는데 사진 한장이 책 갈피에서 떨어졌다. 매우 멋진 청년이었는데 얼핏보기에 그 책장사 아저씨의 사진일 것 같았다. 교문밖으로 달려나가 사진을 내밀었을 때 그 아저씨의 부끄러워하던 모습! 지금도 책을 읽다가 잠시 덮을 때면 왠지 불쑥불쑥 그 아저씨의 빨개졌던 얼굴이 떠오른다.

60년전! 붓을 들어 그릴 수 없어도 머릿속 앨범에 파노라마 사진들처럼 선명하게 붙어 있는 1964년의 봄! 화사했던 교정의 개나리, 라일락과 함께!

김 동문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시인으로 활동하며 시집 '물그림자', 역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시드니 셸던)' 등을 냈다.

###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 '은빛 행복의 달'

8월은 '행복하다고 인정하세요(Admit You're Happy)' 캠페인이 펼쳐지는 달이다. 20여년 전 텍사스에서 시작된 캠페인이 이젠 전국적으로 확대돼 거의 대부분의 주가 8월을 '행복 체험의 달'로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캠페인의 구호가 재밌다. '불행한 당신 실버 색깔의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세요.' 행복이 실버와 무슨 관련이 있길래...

알고 보면 '실버 라이닝(Silver Lining)'에서 비롯된 슬로건이다.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도 가장 자리는 한줄기 은빛으로 밝게 빛난다고 해서 생겨난 말이다. 불행이나 실망 속에서도 한가닥 남아있는 희망이라는 뜻으로 흔히 쓰인다.

실의에 빠져 있거나 울적할 때 은빛 선글라스를 끼면 '실버 라이닝'이 더욱 또렷하게 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 있

는 캐치프레이즈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업소에선 캔디를 은빛 알루미늄 포일로 예쁘게 포장해 손님들에게 건네주기도 한다. 직장에선 10센트 짜리 은전 곧 다임이 행복의 심볼이다. 주머니에서 다임 한개를 꺼내 슬쩍 손에 쥐어 주면 옆자리 동료는 감동하게 된다.

한꺼번에 다임 대여섯개를 받아 챙긴 직원은 별떡 일어나 익살을 떨기 마련. "하마터면 행복에 걸려 넘어질 뻔했네."

캠페인이 효과를 거둬서인지는 몰라도 미국인들의 행복도는 예상보다 꽤 높은 편이다. 올해 유엔이 전세계 14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은 16위에 랭크됐다.

행복에 관한 한 캐나다(15위)와 엇비슷한 수준이다. 상위는 누구나 예상하는 대로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등 유럽의 작은 나라들이다. 인구 5,000만 이상되는 국가 중엔 미국의 순위가 가장 높았다.

한국은 그러나 소득 격차가 워낙 커

있는 자와 없는 자와의 갈등이 심한 탓인지 59위로 뒷걸음질 쳤다. 행복지수는 그 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기대수명, 사회적 지지, 자유, 부정부패, 관용 등 6개 항목을 기준으로 산출했다.

과연 돈이 미래 행복의 담보물일까. 연구 결과를 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일리노이주립대학(어바나 샴페인)의 에드워드 디너 교수는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전후해 행복도는 더 이상 소득과 비례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디너는 '행복 박사' 이른바 '닥터 해피(Dr. Happy)'로 불리는 유명 심리학자다.

디너 교수가 밝혀낸 더욱 흥미로운 사실 한가지.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인생의 후반부에 소득 수준이 더 높아졌다.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지만 행복하면 나중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행복은 뭘까. 결론은 모든 부문에서 조금씩은 부족해야 행복을 느낀다는 것.

▲재산은 먹고 살기에 조금 부족할 것.

▲외모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떨어질 것. ▲명예는 자신의 생각보다 절반 밖에 인정받지 못할 것. ▲말솜씨는 연설을 할 때 청중의 절반쯤만 박수를 치는 정도일 것.

옛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행복의 조건으로 꼽은 것이다. 2400년 전에 벌써 행복이 뭘지 깨달았으니 따지고 보면 플라톤이 '닥터 해피'의 원조가 아닌가 싶다.

성공한 사람과 비교하면 불행해진다.는 것 좁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덜 성공한 사람을 보면 우리가 받은 축복을 헤아릴만한 여유가 생긴다. '3등이 2등 보다 행복하다'는 말은 이래서 나온 게 아닐까. 1등과 늘 경쟁해야 되는 2등. 얼마나 불행하고 피곤한 인생인가.

경제여건이 어렵다지만 8월 한달만큼은 행복해지도록 연습해보자. 옆사람에게 10센트 짜리 다임 한개를 건네며 행복을 빌어주자. 그러면 옆사람이 또 그 옆사람에 다임을 ... 행복은 전염된다고 하지 않는가. <편집고문>

## 꽃과 나무가 좋아서



차효미  
음대 63

저희 4남매가 자랄 때 어머니는 항상 꽃과 나무를 많이 심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런 꽃이 피었으니 보아라, 이틀이 멀다하고 오늘은 또 저런 꽃이 피었으니 좀 나와보라 하셨지요.

우리는 귀찮아서 입을 삐죽거리며 “꽃이 거기 있겠지 뭐, 어디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볼게요.” 그러는 가운데 겨울에 각 방에 선인장을 들여 놓으시며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들여다 보고 필요하면 물을 조금씩 주거라” 당부하셨습니다. “아니 물이 필요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쥐, 생긴 건 항상 똑 같구만” 하고는 말려 죽이곤 했습니다.

전쟁 후 시골에서 한동안 살 때에도 마당 가득히 꽃들이 만발해서 사람들이 꽃집인 줄 알고 들어오면 한달발씩 주시곤 했었지요. 제가 미국에 온 뒤 시골에 작은 집을 사서 별장을 꾸미셨는데 집을 증축해 벽난로를 만드시고 매년 꽃과 나무를 많이 심으셨다고 합니다.

시냇물 한 쪽을 막아서 연못과 수영장을 만드셨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십년 가까이 거동을 못하시게 되니까 그곳을 관리할 수가 없어서 누구에게 파셨다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잠깐 한국에 다녀온 것과 몇년 뒤 어머니 장례식, 그리고 아이들 일로 한번 나

갔었던 일이 전부입니다.

처음에는 공부한다고 미국에 와서 집 어치우고 결혼한 뒤에는 남편(박흥우, 문리대 61) 대학원 다니느라고, 다음에는 오랫동안 영주권 기다리며 어린 아이 셋 키우느라 정신 못차렸습니다.

그 다음은 전공과는 동떨어진 진로에서 제가 공부하느라, 또 잘 알지도 못하는 전문직 분야에서 힘들게 일하느라, 어찌어찌 아이들이 자란 다음에는 대학교 학비 대느라, 결혼시키느라, 이력저력 세월이 가다보니 어느덧 미국에서 산지가 꼭 50년이 되었습니다. 주변머리가 없어서였는지 남들은 잘도 왔다갔다 하더군요 제가 그 시골집을 끝내 못가본 것이 아쉽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공부하고 일하며 아주

일이 있어서 흠디포 또는 로스에 남편과 같이 가면 저는 기다리는 동안 언제나 가든 센터에서 꽃과 나무를 구경하곤 합니다. 어찌다가 시간이 있을 때면 집에서 멀지 않은 Behnke라고 부르는 너서리에 가는 것도 좋아했지요.

오래전 어떤 한국분이 그곳에서 분재 재배를 가르치는데 첫 날은 무료로 구나 올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저는 워싱턴 디씨에 있는 국립수목원 분재박물관도 좋아했기에 가까이 지내는 친구에게 강의 들으러 같이 가보자 했습니다.

그에 말이 “나는 꽃도 나무도 좋아하지만 본사이는 딱 싫더라. 불쌍한 나무들을 억지로 철사로 매서 합부로 꾸부리고 잘라내고...” 그게 아니라고 말해

정원에서 일하는 나이든 분들이 어찌나 친절한지 무슨 일을 도와드릴까 물으면 저는 그냥 꽃과 나무들이 좋아서 구경한다고 했고 그들은 자기도 나무가 좋아서 그곳에서 일하는데 마음껏 보고 가라 했습니다.

89년 동안이나 견뎌왔던 패밀리 비즈니스가 결국 변해가는 시대의 흐름에 못견디고 3년 전에 문을 닫게 된 것이 못내 안타까웠지요. 그 장소에 타운하우스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집을 떠나서 대학을 다닐 때 그리고 졸업 후 일을 할 때 집에 온다고 하면 언제나 식탁 가운데 꽃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애들을 위해서 열심히 장식했었는데 아이들은 우리 엄마가 꽃을 좋아하는구나 하고는 생일이나 어머니날에 꽃을 보내왔습니다. 너희들 살기도 바쁘는데 그만하라 해도 말을 안 듣지요. 며칠 있으면 꽃이 죽을텐데 낭비하지 말라 했더니 그 다음에는 화분을 보내왔어요.

지금도 막내가 보낸 20년 가까이 되는 화분을 두개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green thumb’인가 보다 그러는데 ‘green thumb’이 뭔지는 몰라도 저는 그냥 매일 드러다보는 것이 즐겁습니다. 지난번 딸네 집에 갔더니 다른 손님들이 있었는데 어린 손녀딸이 제 손을 잡고 소개했습니다. “This is 할머니(그애는 제 이름이 할머니인 줄 압니다). She has lots of flowers in her house.”

많은 것은 아니고 조그만 화분까지 해서 열 몇개 있는데 집이 크지 않으니까 아이 눈에는 많게 보이는구나 하고 혼자 웃었습니다.

저희 형제자매들이 편지나 전화로 가끔 어머니 얘기를 할 때면 가장 많은 추억이 그렇게도 꽃과 나무를 사랑하시던 모습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도 저를 그렇게 기억해줄지 궁금합니다.



“저희 형제자매들이 편지나 전화로 가끔 어머니 얘기를 할 때면 가장 많은 추억이 그렇게도 꽃과 나무를 사랑하시던 모습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도 저를 그렇게 기억해줄지 궁금합니다.”

바쁘게 살면서도 늘 한 두개 화분을 키워왔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손쉽고 오래가는 선인장이 항상 있었지요.

오래 전에 딸 아이가 사귀던 청년이 처음으로 우리집에 올 때 네 어머니가 무슨 꽃을 좋아하시나 물었더니 선인장이라고 했대요. 제가 아주 감사하게 받았었습니다.

도 막무가내 싫다고 하는지라 할 수없이 혼자 갖지요.

지금은 아무데서나 비치지 않은 본사이를 쉽게 살 수 있지만 그때만해도 규모를 갖춘 너서리가 아니면 드물었으니까요. 저는 그뒤에도 가끔 Behnke에 가서 사지도 않으면서 이것저것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 동창회보 광고협찬 후원금 부탁드립니다

동창회보는 미주 각 지역에 살고 계신 동문 여러분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유일한 인쇄매체입니다. 매달 거의 1만부를 인쇄 배포하고 있어 동창회의 재정 부담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사업체를 갖고 계신 동문들이 광고로 협찬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출연해 주시는 종신이사 회비는 미주 동창회 재정차입 300만 달러 모금 캠페인 계정에 별도 적립되고 있어 동창회 운영비용으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일반 후원금으로 도와주시면 동창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내=27면 참조〉

## 장민구(공대 86) 동문에 비친 오늘의 한국 16년만의 귀향 ... 갑자기 온갖 회한이 물밀듯 ‘밀집’이 이 시대의 키워드, 재밋고 신기한 체험

비행기 좁은 창문으로 희뿌옇게 보이는 강화도의 빨밭과 논밭 고리고 빼곡한 고층아파트들. ‘아 드디어 한국이구나’ 하고 마음 속으로 탄성을 지를 때 내 가슴은 갖가지 회한으로 먹먹해졌다. 3년 만에 신학을 마치고 돌아갈 줄 알고 별 마음의 준비도 없이 떠났던 고국에 16년 만에 처음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내 인생은 참 다이내믹 했다. 대학 시절에는 87년 민주화 운동의 한 복판에서 있었고, 졸업 후에는 부모 세대의 가난을 딛고 일어서느라 여러가지 삶을 시도해야 했다. 대기업, 고시 공부, 벤처기업, 그리고 마침내 제조업 창업과 경영 ... 청춘이 짝을 정도로 많은 경험을 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에서도 완전히 실패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만족할만한 그래서 그 자리에 안주할만한 성공도 이루지 못했다. 궁극적 만족과 행복은 어쩌면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 불가능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내 청춘은 브레이크가 없는 기관차처럼 앞으로 앞으로 달리는 삶이었다. 그리고 그 기관차는 미국이라는 정류장에 지난 16년 동안 정차해 있다.

한국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일찍 잠에서 깨어 머물렀던 고층아파트 창문을 열고 밖을 보았다. 아파트 숲. 조지아주 애틀랜타 교외 지역인 뷰포드의 풍경과는 너무나 달랐다. 16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초고층 아파트들이 강남, 분당, 부산 광안리 등 주로 신도시 지역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여기 저기 없는 곳이 없다.

심지어 뜬금없다 싶을 정도의 시골에도 그런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저렇게 아파트들이 많은데 ... 왜 집을 사는 게 실현 불가능한 꿈이 되었을까’라는 의문이 자연스러울 정도다.

공항에서 가까운 수원 동탄에 사는 조카 집에서 첫날 밤을 지내고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섰다. 한국의 묘미는 단연 밀집이었다. 짧은 거리에 필요한 것들 뿐 아니라 즐기기 위한 것들까지 모두 밀집해 있다.

아파트를 나서서 1마일 정도 반경 안에 상점들, 레스토랑들, 학원같은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은 물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산책로 혹은 공원, 나아가 노래방, 술집 등등 위락시설들까지도 모여 있다. 주거지역과 비즈니스 지역은 물론 그로서리 마켓, 레스토랑 등을 가

기 위해서는 대부분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미국 스타일의 환경에 얼마간 낯은 나에게 너무나 재미있고 신기한 체험이었다.

달라지고 발전한 한국의 모습은 대단했다. 강산이 바뀐다는 10년이 한 번 그리고 반이 또 지났으니 강산도 과연 한번 그리고 반 더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괄목상대, 즉 눈을 비비고 다시 봐야 할 정도라 할 만했다.

미국에서 한국 방송들을 통해서 접했던 전주 한옥마을을 관광할 때는 정말



고층 아파트는 이제 수도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시골 어디에 가도 아파트가 밀집해 있다.

처가 식구들과 거제도에 딸린 외딴 섬 외도를 다녀왔다. 고향인 전주에서 출발해 통영을 거쳐 거제에 가서 배를 타고 들어갔다. 외로운 등대섬 외도도 관광 코스로 잘 개발되어 좋았지만, 내게는 오가는 로드 트립이 더욱 좋았다. 한국을 즐길 수 있어서였다.

특히 통영은 각별한 추억이 있는 곳이다. 16년 전 미국에 오기 직전에도 들렀었다. 그곳에 가까운 대학 친구가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그 친구는 소식이 끊어져 내 추억 속으로 사라



전주 한옥마을은 그 고풍스러움과 아름다움에 탄성이 절로 나왔다.



한려 해상국립공원, 바람의 언덕 아래에서 아내와 함께.

**“나는 갈 곳이 없어 여기(미국)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사명이 있어~ 이곳에서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고 의미를 깨닫게 해준 (한국) 여행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입에서 나오는 탄성을 막을 수 없었다. 어떻게 고풍스러운 모습을 간직하면서도 현대적으로 잘 꾸며놓았는지 보는 눈이 너무나 시원하고 즐거웠다. 만나는 사람마다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싶은 반가운 마음이 절로 들었다.

어두어지자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거리를 가로지른 청사초롱은 고풍의미를 한껏 더해 주었다. 비싸지 않지만 한국적인 향기를 물씬 풍기는 작은 기념품 혹은 생활용품들을 잔뜩 샀다. 미국인 친구들에게 선물했을 때 신기해 하고 좋아할 얼굴들을 상상하면서.

했지만, 한려 해상국립공원은 16년 전과 다름없이 아름답게 그곳을 빛내고 있었다. 더구나 지난 16년 동안 더해진 관광 인프라는 천연수역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즐거움을 한층 더해 주었다.

어머니를 모시고 한 설악산 여행을 통해 본 강원도는 남도의 자연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 주었다. 한국에 살 때 매번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관광지에서의 바가지나 횡포는 찾아볼 수 없고, 잘 정비된 주차시설들과 깨끗하게 보존된 자연의 아름다움만이 눈에 들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 가까운 항구

나 방과제에 불법 주차를 하고 낚시를 하는 등, 괄목상대할 외형적 발전에 걸맞지 않게, 여전히 질서를 지키지 않는 모습도 적지않은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멀리 울산바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선 산꼭대기에는 상쾌한 한국 강원도의 천혜의 맑은 공기가 가득했다. 재미있었던 것은 나와 내 아내가 촌스럽게 보일 정도로 거기에 온 관광객들이 깔금하고 세련된 차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외형적 성장은 인프라 스트럭처만이 아니라 개인들의 삶에도 미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문화의 발전은 문명의 발전에 시간적으로 뒤쳐진다는 사회학 이론이 있다. 이번 한국 여행에서 그것을 실감했다. 공무원들이나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전에 비해 많이 친절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골목골목 가득 찬 불법주차와 양보를 하지 않는 운전습관 등은 앞으로 발전해야 할 문화의 방향을 보여주는 듯했다.

중소형 아파트 단지들, 주택단지들, 혹은 상가밀집지역 등에서 피할 수 없는 음식물쓰레기 혹은 하수구 냄새, 도시나 지방이나 할 것 없이 시원하게 뚫린 도로와는 대조적으로 그 도로가에 단정히 정비되지 않은 잡목들 잡초들은 인프라 스트럭처의 발전을 완성시켜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듯했다. 디테일까지 마무리하는 섬세함과 세련됨이 그것이 아닐까.

이번 한국 여행은 10년 반 공부를 하고 6년째 일에 적응해 가고 있는 미국에서의 16년에 매몰되었던 나를 박스에서 끄집어 내어주었다. 언제든 원하면 돌아갈 수 있는 곳, 나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곳, 어디 가든 말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누구와든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곳, 어느 음식점에 들어가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 ... 그런 곳이 내게 있다는 것을 소스라치게 놀라듯 깨달았다.

나는 갈 곳이 없어 어쩔수 없이 여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사명이 있어 스스로 택하여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준, 그래서 이곳에서의 삶에 활기와 의미를 더욱 살어나게 해 준 여행이었다.

(조지아주 동창회 부회장 · 편집위원)

www.yongsusanla.com

  
 개성요리 · 궁중요리 전문점  
**용수산 YONG SU SAN**  
 traditional korean cuisine

Tel : 213. 388. 3042      Mon thru Sun 11:30am ~ 10pm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정신과 의사 (의대 '65)  
**이원택의 미·한 변형 사전**

21세기 미국인이 생활 현장에서 쓰는 영어를 (어원 추적) (파생어별 정렬) (소셜식 풀이)를 통해 [한글 발음] [한글 해석] [대체 한글] 로 표기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처방} 사전이다.



IT 용어, 신조어·콩글리시 등 부록 22편  
 총 1236쪽 양장제본, 정가 35불  
 구매처: LA 반디서점  
 (213)739-8107, [bandibookus.com](http://bandibookus.com)



**HANMI LAW INTERNATIONAL**  
**한미국제법률사무소**

**이종건**  
 (경영대 84)

**Korea**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길 11, 310호(역삼동, 한화진넥스빌)

**Office.** 02-561-9797      **Fax.** 02-561-9696  
**Mobile.** 010-6758-2248      **Email.** [starforce5824@gmail.com](mailto:starforce5824@gmail.com)

**USA**  
 3435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787-3107      **Mobile.** (714) 878-6431





www.snuaa.org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 내에서 최초의 면세 혜택을 승인받은, 26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 종신이사

### 다이아몬드이사 (\$100,000이상)

워싱턴주 -故고광선(공대57)

### 플래티넘이사 (\$50,000이상)

조지아 - 주중광(약대60)  
조지아 - 허지영(문리66)

### 골드이사 (\$10,000이상)

남가주 - 김일영(의대65)  
남가주 - 노명호(공대61)  
남가주 - 박창규(약대59)  
남가주 - 서치원(공대69)  
남가주 - 성낙호(치대63)  
남가주 - 심화섭(약대61)  
남가주 - 이기준(법대54)  
남가주 - 이흥준(상대55)  
남가주 - 이흥표(의대58)  
남가주 - 한홍택(공대60)  
네바다 - 정상진(상대59)

뉴잉글랜드 - 박영철(농대64)  
뉴잉글랜드 - 윤상래(수의62)  
뉴잉글랜드 - 정선주(간호68)  
뉴잉글랜드 - 최홍균(공대69)  
북가주 - 김정희(음대56)  
북가주 - 민병곤(공대65)  
북가주 - 전해경(문리67)  
시카고 - 이용락(공대48)  
워싱턴주 - 양남주(명예이사)  
코네티컷 - 오인석(법대58)  
워싱턴DC - 이태영(법대60)

### 실버이사 (\$5,000이상)

남가주 -故김원경(약대59)  
남가주 - 김병연(공대68)  
남가주 - 이종도(공대66)  
남가주 - 정재훈(공대64)

남가주 - 한귀희(미대68)  
루지애나 - 강영빈(문리58)  
워싱턴주 - 김재훈(공대72)  
워싱턴DC - 남옥현(경영84)  
조지아 - 김경숙(사대64)  
조지아 - 김태형(의대57)  
필라델피아 - 이만택(의대52)  
필라델피아 - 신의석(공대53)

### 종신이사 (\$3,000이상)

#### 남가주

故서영석(의대55)  
故오재인(치대33)  
故윤낙승(의대60)  
강신용(사대73)  
곽웅길(문리59)  
권기홍(의대60)  
권봉성(문리64)  
김경숙(간호68)  
김기형(상대75)  
김동훈(의대71)  
김보연(간호63)  
김상찬(문리65)  
김성호(법대64)  
김수영(사대57)  
김재영(농대62)  
나두섭(의대66)  
노재성(법대58)  
류재풍(법대60)  
박명근(상대63)  
박용필(문리66)  
박원준(공대53)  
박윤수(문리48)  
박종수(수의58)  
방명진(공대73)  
백만일(공대64)

서동영(사대60)  
신영찬(의대63)  
심상은(상대54)  
안병일(의대63)  
오홍조(치대56)  
이근원(공대67)  
이명선(상대58)  
이세열(사대57)  
이승훈(상대74)  
이청광(상대61)  
임낙균(약대64)  
임용오(의대57)  
전희택(의대58)  
정동구(공대57)  
정임현(간호72)  
정철룡(의대55)  
제영혜(가정71)  
조용원(문리66)  
조한원(의대57)  
차민영(의대76)  
차종환(사대54)  
하기환(공대66)  
한효동(공대58)  
벤자민 홍(문리53)  
홍성선(약대72)  
홍종화(약대74)

#### 뉴욕

故김광호(문리62)  
故한창섭(문리57)  
강에드워드(사60)  
고애자(음대57)  
김승호(공대71)  
김종률(사대51)  
김한중(의대56)  
김해암(의대52)

석창호(의대66)  
신용남(농대70)  
윤종숙(약대66)  
이강홍(상대60)  
이기영(농대70)  
이대영(문리64)  
이재덕(법대60)  
이재량(상대61)  
이전구(농대60)  
이준행(공대47)  
이태호(상대 58)  
최수용(상대55)  
최영태(문리67)  
추재욱(의대57)  
한태진(의대58)  
허선행(의대58)

#### 뉴잉글랜드

故고일석(보건69)  
故박경민(의대53)  
고종성(사대75)  
김문소(수의61)  
김용구(공대66)  
오세경(약대61)  
윤선홍(치대64)  
이의인(공대68)  
전신의(문리57)  
정정욱(의대60)  
정태영(문리71)  
홍지복(간호70)

#### 워싱턴DC

공순욱(간호66)  
박평일(농대69)  
서휘열(의대 57)  
오인환(문리63)

이내원(사대58)  
이윤주(상대 63)  
최지원(의대61)

#### 미시간

故남상용(공대52)  
장병진(공대61)  
정태(의대 57)

#### 샌디에고

임천빈(문리61)

#### 북가주

강재호(상대57)  
손석보(공대68)  
윤정욱(약대50)  
한만섭(공대49)

#### 시카고

심상구(상대63)  
이재희(치대67)  
장윤일(공대60)  
조봉완(법대53)  
최의필(의대53)  
한재은(의대59)

#### 오레곤

김상순(상대67)  
이은상(상대52)

#### 미네소타

김권식(공대61)  
김태환(의대58)  
남세현(공대67)  
변우진(인문81)  
조형준(문리62)

황효숙(사대65)  
강연식(사대58)  
권기현(사대53)  
민홍기(문리61)  
방은호(약대43)

#### 아이오와

김시근(공대72)

#### 오하이오

김용현(경원66)

#### 워싱턴주

故김영일(공53)  
이명자(간호74)  
이희백(의대55)  
임현민(공대84)

#### 조지아

김용건(문리48)

#### 코네티컷

유시영(문리68)

#### 플로리다

김중권(의대63)

#### 텍사스

박태우(공대64)  
이광연(공대60)  
조시호(문리59)

#### 필라델피아

고병은(문리55)  
김영우(공대55)

김현영(수의58)  
서종민(공대64)  
손재욱(가정77)  
신성식(공대56)  
주기목(수의68)

#### 하틀랜드

김경숙(가정70)  
김명자(문리62)  
배규영(사대68)  
오명순(가정69)  
이교락(의대53)  
이상강(의대70)

#### 휴스턴

박진섭 (의대 67)

### 이사 구분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골드이사  
\$10,000 이상

실버이사  
\$5,000 이상

종신이사  
\$3,000 이상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 213-908-5586

www.snuaa.org  
news@snuaa.org

# 보내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동창회비** (제1차 회기: 2022.7.1 - 2023.6.30; 제2차 회기: 2023.7.1 - 2024.6.30) 불드는 제 2차회기

## 남가주

강동순(법 59)  
 강윤희(간 46)  
 강창만(의 58)  
 강호석(상 81)  
 강홍제(상 53)  
 고윤석(공 62)  
 권기상(대 72)  
 김건진(문 62)  
 김경옥(미 61)  
 김광은(음 56)  
 김교복(농 63)  
 김근(농 78)  
**김동산(법 59)**  
**김범수(문 61)**  
 김병연(공 68)  
 김병완(공 58)  
 김상찬(문 65)  
 김석구(공 66)  
 김수향(간 68)  
 김순길(법 54)  
 김영덕(법 58)  
 김영중(치 66)  
 김옥경(생 60)  
 김원탁(공 65)  
 김원호(약 63)  
 김은숙(미 62)  
**김종표(법 58)**  
 김재영(농 62)  
 김진식(공 66)  
 김학철(의 55)  
 노명호(공 61)  
 니승욱(문 59)  
 문병길(문 61)  
 박영욱(사 55)  
 박우선(공 57)  
 박원준(공 53)  
 박은숙(미 62)  
 박인수(농 64)  
 박중수(수 58)  
 박창규(약 59)  
 박취서(약 60)  
 박희자(음 68)  
 방명진(공 73)  
 배동완(공 65)  
 백혜란(미 70)  
 서치원(공 69)  
 성주경(상 68)  
 손기용(의 55)  
 신건호(법 53)  
 신동국(수 76)  
 심재호(공 75)  
**오찬수(약 57)**  
**오형원(의 53)**  
 위종민(공 64)

유석홍(상 61)  
 유영자(음 63)  
 윤경민(법 55)  
 윤석철(상 60)  
**윤희성(치 65)**  
 이강훈(치 65)  
 이건섭(치 54)  
**이건일(의 62)**  
 이미정(의 78)  
 이범모(치 74)  
 이범식(공 61)  
 이서희(법 70)  
 이소희(의 61)  
 이영수(상 60)  
 이영현(간 70)  
 이원익(문 73)  
 이장길(치 63)  
 이정근(사 60)  
 이정화(공 52)  
 이창무(공 54)  
 이청광(상 61)  
**이호(음 92)**  
 이호진(간 74)  
 이홍표(의 58)  
 임낙균(약 64)  
**임동규(미 57)**  
 임창희(공 73)  
 장근숙(간 73)  
 장기열(치 55)  
 장동석(문 66)  
**장원경(미 73)**  
 전낙관(사 60)  
 전원일(의 77)  
 정병혁(농 70)  
 정수만(의 66)  
 정인환(법 54)  
 정진우(의 66)  
 정형민(문 71)  
 조선주(간 69)  
 지종근(농 56)  
 차종환(사 54)  
**최영구(상 61)**  
 최영순(간 69)  
 최용완(공 57)  
 최종권(문 59)  
**한동수(의 60)**  
 한성구(상 53)  
 한원민(의 59)  
 한중철(치 62)  
 한효동(공 58)  
 홍병각(문 55)  
 홍선례(음 70)  
 홍선일(공 71)  
 황건홍(공 55)  
**황현상의 55)**

## 뉴욕

강에드워드(사 60)  
 계동휘(치 67)  
 고애자(음 57)  
 광노섭(문 45)  
 권영국(상 60)  
 금영천(약 72)  
 김기택(수 81)  
 김문경(약 61)  
 김병권(문 63)  
 김복영(간 69)  
 김세환(공 65)  
 김영길(문 62)  
 김영숙(약 53)  
 김완주(의 54)  
 김용연(문 63)  
 김유순(간 64)  
 김현중(공 63)  
 리준무(음 65)  
 문석면(의 52)  
 박건이(공 60)  
 박상원(음 69)  
 박수안(의 59)  
 박순영(법 56)  
 박승화(간 69)  
 방준재(의 63)  
 배정희(사 54)  
 서량(의 63)  
**서충선(사 57)**  
 석창호(의 66)  
 선중철(의 57)  
 성기호(약 57)  
 손갑수(약 59)  
 손완배(농 70)  
 송근숙(간 66)  
 송기인(의 60)  
 신두식(의 58)  
 신응남(농 70)  
 신춘희(간 56)  
 양명자(사 63)  
 양성택(상 66)  
 오용환(약 68)  
 우규환(사 60)  
 이상영(상 59)  
 원인순(문 67)  
 유재섭(공 65)  
**윤병남(사 62)**  
 윤인숙(간 63)  
 윤철(문 54)  
 윤희정(문 59)  
 이강홍(상 60)  
 이명중(공 72)  
 이상근(경 84)  
 이재덕(법 60)  
 이재진(의 59)

이태봉(의 56)  
 이해청(약 62)  
 전성진(사 54)  
 정해민(법 55)  
 조남천(사 59)  
 최영태(문 67)  
 최정용(시 63)  
 최한용(농 58)  
 최혁(음 72)  
 최형무(법 69)  
 한병용(문 71)  
 한승순(간 70)  
**허선행(의 58)**  
 허영자(약 63)  
 허용웅(상 63)  
 허유선(생 83)  
 홍정표(음 67)  
 홍종만(공 64)  
**뉴잉글랜드**  
 김기남(간 67)  
 김신혁(약 59)  
 김형범(문 57)  
 이강원(공 66)  
 이규진(약 60)  
 주창중(의 50)  
**네바다**  
**정상진(상 59)**  
**텍사스**  
 위장호(의 67)  
**미네소타**  
 남세현(공 67)  
 문성인(공 88)  
 송세진(치 78)  
 송창원(문 53)  
**미시간**  
 김정화(음 56)  
 김희주(의 62)  
 고선희(문 63)  
 남성희(의 56)  
 신동화(문 55)  
 윤효윤(의 63)  
 이성길(의 65)  
 이재승(의 55)  
 장철(의 65)  
 조문희(공 56)  
 조영현(음 95)  
**북가주**  
 강윤희(간 72)  
**강재호(상 57)**  
 강정수(문 61)

권오형(사 61)  
 김기덕(문 74)  
 김현왕(공 64)  
 김희경(음 73)  
 남광순(음 64)  
 박경용(약 63)  
 박서규(법 56)  
 박종성(법 53)  
 부영무(치 72)  
 손창순(공 69)  
 송영훈(상 57)  
 안호삼(문 58)  
 오명주(간 77)  
 온기철(의 65)  
 이강우(문 59)  
 이성원(공 65)  
 이성형(공 57)  
 이은수(사 64)  
 이장우(문 72)  
 전병련(공 54)  
 정춘임(간 67)  
 정한규(의 63)  
 최경선(농 65)  
 한상봉(수 67)  
 황동하(의 65)  
 황만익(사 59)  
**샌디에고**  
 오계환(공 64)  
 이휘영(법 59)  
**시카고**  
 김동희(공 66)  
 김사직(상 59)  
 김용주(공 69)  
 박정일(의 61)  
 박창욱(공 56)  
 소진문(치 58)  
 신석균(문 54)  
 안신훈(농 61)  
 오명자(간 60)  
 안영학(문 57)  
 이덕수(문 58)  
 이소희(간 68)  
 이시영  
 이영섭(수 56)  
 이영우(문 66)  
**故 이윤모(농 57)**  
 이종일(의 65)  
 임영신(의 56)  
 임현재(의 59)  
 정승규(공 60)  
 정연학(공 63)  
 최대한(의 53)  
**최혜숙(의 53)**

한재은(의 59)  
 황치룡(문 65)  
**알래스카**  
 윤제중(농 55)  
**오레곤**  
 한영준(사 60)  
**오하이오**  
 유덕영(공 57)  
**워싱턴DC**  
 고무환(법 57)  
 권철수(의 68)  
 김동훈(법 56)  
 김명자(법 52)  
 김명철(공 60)  
 김윤호(공 64)  
 김응환(치 88)  
**김희주(의 62)**  
 나연수(사 54)  
**박영철(농 64)**  
 박영태(상 63)  
 박영호(공 64)  
 박홍우(문 61)  
 서윤석(의 62)  
 양광수(공 73)  
 오광동(공 52)  
 오인환(문 63)  
 우제형(상 54)  
 원종민(약 57)  
 유달(의 61)  
 유영준(의 70)  
 유홍열(문 74)  
**이건형(수 54)**  
 이내원(사 58)  
 이선구(문 65)  
 이수안(공 54)  
 이연주(치 88)  
 이영덕(사 61)  
 이영목(공 59)  
 이윤주(상 63)  
 이재승(의 55)  
 이준영(치 74)  
 이해청(약 62)  
 장윤희(사 54)  
**정선주(간 68)**  
 정원자(농 62)  
 조영희(문 66)  
 조화유(문 61)  
 천건희  
 최동호(문 68)  
 최재귀(미 63)  
 한의생(수 60)

홍영석(공 58)  
 황보한(공 56)  
**워싱턴주**  
 김인배(수 59)  
 김재훈(공 72)  
 류성열(공 72)  
 민영기(공 65)  
 박진수(의 56)  
 양용관(수 62)  
 이원섭(농 77)  
 이회백(의 55)  
 장대홍(공 65)  
 전병택(상 65)  
**유타**  
 김인기(문 58)  
**조지아**  
 김영서(상 54)  
 김학래(공 60)  
 노한순(농 56)  
 송용덕(의 57)  
 오경호(수 60)  
 이중석(의 54)  
 임한응(공 60)  
 정선휘(공 65)  
**캐롤라이나**  
 김기현(문 52)  
 이종영(음 58)  
 한광수(의 57)  
**커네티컷**  
 김기훈(상 56)  
 신경호(의 57)  
**최창승(의 52)**  
 홍성휘(공 56)  
**콜로라도**  
 이정화(의 61)  
**테네시**  
 김경덕(공 75)  
**텍사스**  
**김장환(공 81)**  
 박유미(약 62)  
 박태우(공 64)  
 송요한(문 73)  
 이석호(농 78)  
 전중희(공 56)  
 조진태(문 57)  
 진기주(상 60)  
 황명규(공 61)

**플로리다**  
 김성준(의 55)  
 이정필(의 58)  
 임필순(의 54)  
**필라델피아**  
 김경희(생 71)  
 김영우(공 55)  
 김정현(공 68)  
 김재술(약 58)  
 김진우(공 62)  
 김현영(수 58)  
 서종민(공 64)  
 성정호(약 59)  
 손재욱(생 77)  
 신성식(공 56)  
 오진석(치 56)  
 윤경숙(문 59)  
 이만택(의 52)  
 이문호(공 53)  
**이성숙(생 74)**  
 조영호(음 54)  
 조정현(수 58)  
 조화연(음 64)  
 최종무(상 63)  
**하와이**  
 안은식(문 55)  
 하인환(공 56)  
**최경윤(사 51)**  
**하트랜드**  
 김경숙(가 70)  
 오태호(의 56)  
 정민재(농 70)  
 최은관  
**휴스턴**  
 김영일(의 55)  
 박석규(간 59)  
**최용천(의 53)**

**알림**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매월 말일 마감해서 올립니다. 혹시 누락된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nuaausa30@gmail.com

## 일반후원금, 장학기금, 모교발전기금, 광고후원금, 지부 분담금, 우크라이나 기부금 2021.7.1 - 2023.6.30

### 일반후원금

<b>남가주</b>	김영천(약72) 1,000	<b>시카고</b>	캐롤라이나	배병욱(음 58) 300	오레곤	300
강신용(사73) 200	김명철(공60) 200	김현주(문61) 100	한광수(의57) 500	이범모(치74) 200	플로리다	300
구철희(의78) 125	김완주(의54) 75	소진문(치58) 400	<b>커네티컷</b>	홍선일(공71) 100	오하이오	300
권기상(대72) 105	김은희(간78) 200	이용섭(수56) 75	김기훈(상56) 200	<b>워싱턴DC</b>	알라스카	200
김기형(상75) 1,400	김중원(사58) 50	이용락(공48) 1,000	최창승(의52) 500	권철수(의68) 100	남가주	3,000
김동석(음64) 200	김중권(의63) 200	정의철 250	<b>캐나다 밴쿠버</b>	최재귀(미63) 300	캐롤라이나	200
김병연(공68) 200	리준무(음65) 200	최희수(문67) 100	장희순(문75) 388	<b>워싱턴주</b>	하와이	300
김새담(법55) 25	문석면(의52) 200	한경진(상59) 200	<b>광고후원금</b>	이원섭(농77) 150	미네소타	600
김영(수63) 500	박순영(법56) 75	<b>오레곤</b>	<b>남가주</b>	<b>필라델피아</b>	<b>Charity Fund(나눔)</b>	
김영봉(사60) 200	서량(의63) 75	김상순(상67) 200	강호석(상81) 240	손재옥(생77) 100	남가주	
김영중(치66) 75	선종철(의57) 100	<b>텍사스</b>	고석자(인72) 600	<b>샌디에고</b>	임낙균(약 64) 3850	
김영희(간54) 50	신응남(농70) 2,400	박영규(사66) 200	김경무(공69) 400	임춘수(의57) 200	<b>필라델피아</b>	
김은숙(미62) 1,000	이강홍(상60) 200	이석호(농78) 200	김양희(음77) 3,700	<b>장학기금</b>	손재옥(생77) 100	
김은중(상59) 400	이재덕(법60) 75	진기주(상60) 500	김원탁(공65) 480	<b>남가주</b>	<b>우크라이나 기부금</b>	
김종섭(법66) 100,000	이전구(농60) 500	황명규(공61) 200	김은중(상59) 600	박원준(공53) 300	남가주	
김종표(법58) 200	조남현(사59) 350	<b>필라델피아</b>	김자성(의79) 1,500	한흥택(공60) 50,000	구상선 50	
노명호(공61) 25,000	조태환(상56) 50	윤경숙(문59) 200	김정빈(공66) 500	<b>시카고</b>	노명호(공 61) 1,000	
노진걸(사70) 200	차수만(약71) 300	이만택(의52) 200	나두섭(의66) 200	이용락(공48) 300	유의영 100	
박용필(문66) 1,000	최한용(농58) 1,500	이성숙(생74) 200	나정자(간70) 400	<b>뉴욕</b>	이정남 200	
박우선(공57) 500	최현(음72) 200	이승공(의63) 200	미주동창회(11대) 1,000	신응남(농70) 200	이호진(간74) 100	
박원준(공53) 200	최승순(간70) 150	정태광(공74) 100	미주재단 10,000	이강홍(상60) 500	서진(간56) 3,000	
박은숙(미62) 200	허선행(의58) 400	지홍민(수61) 200	민일기(약69) 500	<b>필라델피아</b>	안혜정(생77) 300	
박종수(수58) 12,000	홍종만(공64) 200	손재옥(생77) 200	박수경(생84) 3,000	손재옥(생77) 100	한흥택(공60) 1,000	
박혜란(음72) 300	<b>네바다</b>	<b>워싱턴</b>	박제환(문75) 500	윤경숙(문59) 100	홍종화(약74) 500	
방석훈(농55) 500	정상진(상59) 350	민영기(공65) 75	박찬호(공58) 300	<b>미시간</b>	<b>북가주</b>	
성주경(상68) 200	<b>미네소타</b>	<b>조지아</b>	서동영(사60) 480	이정화(음66) 175	이창우(문72) 100	
손영아(음) 15	문성인(공88) 50	김동환(의52) 200	서치원(공69) 2,500	<b>워싱턴 DC</b>	뉴욕	
송영두(공59) 200	<b>미시간</b>	정양수(의60) 25	안혜정(생77) 800	오인환(문63) 175	민준기(공59) 100	
신영찬(의63) 200	김희주(의62) 225	김용건(문48) 200	이기준(법54) 500	<b>조지아</b>	조상근(법69) 1,000	
안혜정(생77) 200	오동환(의65) 200	송용덕(의 57) 200	이범모(치74) 250	이충석(의54) 200	김용건(문48) 200	
오찬수(약57) 200	윤효윤(의56) 200	<b>워싱턴DC</b>	이상대(농80) 240	<b>Brain Network</b>	유성무(상66) 300	
오홍조(치56) 50	이성길(의65) 100	강길중(약69) 200	이원택(의65) 2,200	<b>시카고</b>	<b>오레곤</b>	
이걸일(의62) 200	이정화(음56) 200	고무환(법57) 200	이종묘(간69) 480	이용락(공48) 200	한영준(사60) 100	
이명선(상58) 500	이재승(의55) 75	권철수(의68) 200	임춘택(상68) 400	조중행(의63) 100	<b>워싱턴DC</b>	
이범식(공61) 375	<b>뉴잉글랜드</b>	김동훈(의68) 200	정재훈(공64) 240	<b>필라델피아</b>	최재귀(미63) 200	
이병준(상55) 3,000	윤상래(수62) 500	김동우(의68) 200	주영세(사59) 400	손재옥(생77) 100	<b>커네티컷</b>	
이소희(의61) 75	박종승(의56) 200	김영환(의68) 200	차민영(의76) 1,500	<b>워싱턴 DC</b>	유시영(문68) 500	
이정길(치63) 50	주창준(의50) 200	김영철(의64) 1,000	최용준(수81) 400	서위열(의57) 300	<b>워싱턴</b>	
이창신(법57) 500	<b>북가주</b>	박영철(의64) 100	한효동(공58) 300	<b>시카고</b>	이길송(상57) 100	
임낙균(약64) 1,000	부영무(치72) 200	박영철(의69) 900	홍종정(음70) 400	김신웅(생59) 300	<b>시카고</b>	
장동석(문66) 200	한상봉(수67) 500	박영우(문61) 200	<b>뉴욕</b>	이충석(의54) 200	재현수(사61) 200	
전낙관(사60) 75	황만익(사59) 200	변광록(간72) 200	김기택(수81) 240	<b>지부분담금</b>	<b>휴스턴</b>	
전원일(의77) 75	<b>샌디에고</b>	백순(법58) 200	김승호(공71) 1,500	샌디에고 550	진기주(상60) 1,000	
정근희(의65) 10,000	이휘영(법59) 75	서윤석(의62) 200	석창호(의66) 240	뉴욕 3,000	<b>캐나다 밴쿠버</b>	
정재훈(공64) 260	임춘수(의57) 200	석규범(문61) 200	신응남(농70) 240	뉴잉글랜드 1,000	장희순(문75) 100	
최용관(공57) 100	<b>플로리다</b>	석보환(사68) 200	이전구(농60) 240	워싱턴DC 2,000	<b>뉴잉글랜드</b>	
최종권(문59) 220	임필순(의54) 200	우인환(문63) 600	<b>워싱턴DC</b>	시카고 2,400	윤상래(수62) 200	
최진석(법64) 25	조경호(의66) 200	유영준(의70) 175	남옥현(경84) 9,300	<b>조지아</b>		
한귀희(미68) 2,000	<b>하트랜드</b>	이내원(문65) 275	이내원(사58) 1,000	이태영(법60) 1,800		
한흥택(공60) 200	고 차봉희(의51) 500	이연주(치88) 200	<b>모교발전기금</b>	<b>남가주</b>		
황현상(의55) 350	이상강(의70) 10,000	이영목(공59) 200	남가주	박우선(공57) 300		
<b>뉴욕</b>	최은관 500	정선주(간68) 100	박원준(공53) 700			
강에드워드(사60) 200	<b>테네시</b>	정평희(공71) 200				
강창홍(의63) 50	김경덕(공 75) 100	조화유(문61) 75				
고애자(음57) 50						
권영국(상60) 200						

##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200	<input type="checkbox"/> \$100 (2022.7 - 2023.6)	<input type="checkbox"/> \$240 (2022.7 - 2023.6)	<input type="checkbox"/> Scholarship Fund (장학금) \$ _____
<input type="checkbox"/> \$500	<input type="checkbox"/> \$200 (2022.7 - 2024.6)	<input type="checkbox"/> \$480 (2022.7 - 2024.6)	<input type="checkbox"/> Charity Fund (나눔) \$ _____
<input type="checkbox"/> \$1,000		일반 광고 문의: snuaausa30@gmail.com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후원금 \$ _____
<input type="checkbox"/> \$ _____	<input type="checkbox"/> \$3,000(중신이사회비)		<input type="checkbox"/> 모교발전기금 \$ _____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중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 회비는 회비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 \_\_\_\_\_,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보낼 곳: SNUAA-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 Tel: (213)908-5586 | Email: snuaausa30@gmail.com

(보내주시는 회비 및 후원금 합계가 \$250 이상 되시는 동문께서는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글이름:	영문이름:	단과대:	입학연도:	지부:
E-mail:	Cell Phone:		*주소가 바뀔경우에만 기입 바랍니다.	
주소:				

**남가주지역**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공대66)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 그룹**

한태호(인문대 75) www.haanlaw.com

**213-639-2900**

3699 Wilshire Blvd., #860, LA, CA 90010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사대 81)

**213-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A, CA 90010

**Law Office Of Kyung Hee Lee**

이경희(인문대 83) imin@iminusa.net

**213-385-4646**

3435 Wilshire Blvd., #1110, LA, CA 90010

**부동산**

**Team Sprit Realty**

이종묘(간호대 69) jenniecelee@gmail.com

**714-396-0624**

6301 Beach Blvd., #225, Buena Park, CA 90621

**식품/음식점**

**자연나라**

이승훈(상대 74)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해태 USA**

정정우(수외대 74)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vello, CA 90640

**북창동 순두부**

이태로(법대 50)

**213-382-6660**

3575 Wilshire Blvd., LA, CA 90010

**병원**

**실로암병원**

정균희(의대 64)

**213-386-8602**

2528 W. Olympic Blvd., #103, LA, CA 90006

**동물병원**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수의대64)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수의 76)

**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농대 80)

**909-882-3800**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Gilbert Drugs**

최무식(약대 66)

**714-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김경무(공대 69) kyungmookim@yahoo.com

**(213) 616-1390**

114 Washing Blvd., #C, Marina Del Ray, CA 90292

**SHIN-YONG KANG CPA**

강신용(사대 73) 공인회계사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Lee Kang Won CPA**

이강원(인문대 76)

**(213) 387-1234**

3600 Wilshire Blvd., #930, LA, CA 90010

**GSK LLP**

강호석(상대 81) cpa@hosukgangcpa.com

**(213) 380-5060 (LA, CA)**

**(714) 530-3630 (Garden Grove, CA)**

**JUN CHANG**

장 준(인문대 85)

**(818) 772-2811**

11145 Tampa Ave., Suite 26A Northridge, CA 91326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상대 68) choontaikim@gmail.com

**(213) 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CPA**

김원철(농대) kimandhwang@cs.com

**213-383-8553**

3435 Wilshire Blvd. #940, LA, CA 90010

**기계 · 기술 · 전자**

**Link TV Media** www.linkboxusa.com

김원탁(공대 65) linkboxusa@gmail.co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Turbo Air, Inc.**

서치원(공대 69)

**(310) 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공대 64) chung@taycoeng.com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부품**

서동영(사대 60)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기타**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농대 74)

**818-720-2373**

2098 S. Grand Ave., Suite A, Santa Ana, CA 92705

**뉴욕지역**

**공인회계사**

**KI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상대 64)

1430 Broadway St., 306, New York, NY 10018

**리테일**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농대 60) www.nycgolfcenter.com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변호사**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농대 70) petershinesq@gmail.com

**718-463-3131**

158-14 Northern Blvd. 2FI #UI-2 Flushing, NY 11358

**금융**

**Edward Jones Investments-**

윤의규(상대 82) edwarded.yun@edwardjones.com

**201-978-7055**

560 Sullivan Ave St 3270 Englewood Cliffs NJ 07632

**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의대 73)

**201-302-9774**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의대 66) changhsuk@aol.com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이창석 내과**

이창석(의대 72) cleel134597@aol.com

**718-762-4400**

40-5 Browne St., Flushing, NY 11354

**김해암 정신의학 전문의**

김해암(의대 53) haeahm@aol.com

**212-879-2322**

230 East 73Rd Street St., 1A, New York, NY 10021

**박범열 소아과**

박범열(의대 75)

**718-229-1188**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박종효 소아과**

박종효(의대 79)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수의대 81)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의대 73)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

김승호(공대 71)

**718-463-0001**

44-04 21St St., Queens, NY 11101

**전미주 서울대 동문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창회를 이끌어가는 힘은 동문들의 격려와 후원입니다.**

**협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16대 노명호 회장&임원 일동/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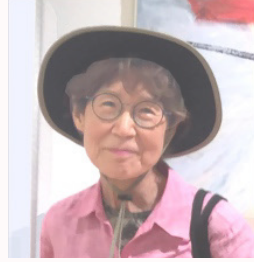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Tel: 213-908-5586 Email: snuaausa30@gmail.com



주선희(문리대 66 · UCLA 미대)  
**제10회 개인전**



Instagram: sunhee.joo

# Love Embracing

TAG Gallery

August 31 - September 24, 2022

Opening Reception 5-8pm, September 3, 2022

5458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323) 297-3061

오늘까지 일구어온 모든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내일엔 더 가슴 뛰는 이야기가 꽃피울 수 있도록,  
 귀하의 가문만을 위한 서비스를 디자인합니다.

Multi-generational Wealth Management  
 영속적 가문 자산관리

Manage Your Family  
 Like a Business  
 웰씨앤와이즈 패밀리오피스

Next Generation Education  
 다음세대 교육

Investment Strategy  
 투자전략

Concierge  
 컨시어지

Philanthropy  
 필란트로피



**Wealthy & Wise**

■ Baltimore ■ Honolulu ■ Seoul  
 ■ 410.469.9532 ■ 345 N. Charles St, Baltimore, Maryland  
 ■ 808.427.8434 ■ 1003 Bishop St, Suite 2700, Honolulu, Hawaii  
 ■ www.wnwinc.co.kr ■ info@wnwinc.co.kr  
 ■ 이태영 (법학과 60) 웰씨앤와이즈 설립자, 상임고문  
 ■ 박상우 (경영전문대학원 06) 웰씨앤와이즈 한국법인 대표이사

since 1999 **듀오** USA

# 결혼해듀오

대표이사 박수경  
 [84入 소비자학과]



www.duouusa.net

LA **213-383-2525**  
 NY **201-947-2525**

## 제16대 미주동창회

**회장 노명호(공)**

상임고문: 김종섭(문),  
고문: 박중수(수), 주중광(약)

**차기회장 이상강(의)**

**명예회장 신응남(농)**

**역대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치), 이영목(공), 이진구(법),  
송순영(문), 김은중(상), 오인환(문), 손재욱(가),  
윤상래(수)

**브레인 네트워크/포럼 위원회**

위원장: 한홍택(공)  
위원: 김정빈(공), 김재훈(공), 김유경(음),  
차재호(농), 정호(공), 이관후(공)

**후원위원장 서치원(공)**

위원: 차민영(의), 강성진(문)

**집행부**

사무총장: 강호석(상)  
총무국장: 이호진(간)  
재무국장: 이윤중(미)  
IT 국장: 심재호(공)  
문화 광고국장: 홍선례(음)  
섭외국장: 안혜정(생)  
홍보국장: 김자성(의)

**동창회보**

발행인: 노명호(공)  
편집 고문: 박용필(문), 김정현(공)  
편집위원: 김양희(음), 박승현(음), 이준수(공),  
장민구(공), 한정희(미), 허유선(가)

**장학위원회**

위원장: 노명호(공)  
위원: 한홍택(공), 황경순(공), 강호석(상),  
남성우(공), 김태환(자), 홍주선(상)

**회칙위원회**

위원장: 김병연(공)  
위원: 김용현(상), 김지영(사), 성주경(상),  
이민언(법), 조화연(음), 최경선(농), 최진석(법),  
한재은(의)

**포상위원회**

위원장: 노명호(공)  
위원: 각 지부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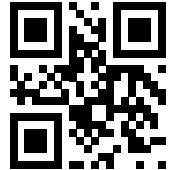
감사: 김경무(공)  
김영태(미)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전화 (213)908-5586 | 이메일 news@snuuaa.org | 웹사이트 www.snuuaa.org

주소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알림: 2022년 새로 지부장이 결정된 곳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nuuausa30@gmail.com

**남가주 S.CA/NV** (회계연도 Feb~Jan)

회장 박재환(문리 75) T: (323)229-3369  
jaycpa2000@gmail.com  
차기 회장 김경무(공대68) T: (213)210-1110  
kyungmookim@yahoo.com

**북가주 SAN FRANCISCO** (Jan~Dec)

김철규(공대 60)  
cheolkim@gmail.com

**샌디에고 SAN DIEGO** (Nov~Oct)

유재호(공대 90) T: (469)387-7922  
blue9071@gmail.com

**워싱턴주 WASHINGTON** (Jan~Dec)

회장 이명자(간호 74) T: (206)218-8887  
drmiale@gmail.com  
차기 회장 하혜숙(간호 77) T: (425)240-5633  
annaparkha@gmail.com

**오하이오 OHIO** (Jan~Dec)

이성우(상대 72) T: (614)370-5761  
Rimshake@hotmail.com

**하와이 HAWAII** (Jul~Jun)

회장 성낙길(문리 77) T: (217)508-8711  
nsung@hawaii.edu  
차기 회장 전주진 T: (808)956-8283  
soojin@hawaii.edu

**북텍사스 LA/DALLAS** (Jan~Dec)

김순기(치대 82)  
EricSophia@gmail.com

**중부텍사스 MID-TEXAS**

이학호(수의대 59) T: (512)487-4390  
Hakho3830@gmail.com

**룩키마운틴스 MT/CO/WY/NM** (Jan~Dec)

최문기(공대 73)  
mungichoi@hotmail.com

**캐나다 밴쿠버** (Jan~Dec)

장희순(문리 75) T: (236)513-0376  
p21.snuainvan@gmail.com  
sphro17@gmail.com

**오레곤 OR/ID** (Jan~Dec)

박희진(농대 78) T: (503)648-0775  
hjpark@flonomix.com

**캐나다 앨버타** (Mar~Feb)

정중기(공대 70)  
T: (403)617-7585

**알래스카 ALASKA** (Jan~Dec)

윤재중(농대 55) T: (907)223-0887  
jaeyoon@hotmail.com

**미시간 MICHIGAN** (Jan~Dec)

회장 이광진(공 81), 248-595-2836  
kmikelee@umich.edu

**시카고 IL/IN/WI** (Jan~Dec)

회장 김승주(간호 69) T: (630)341-1943  
seungjoochang@gmail.com  
차기 회장 황치룡(문리 65) T: (847)895-2814  
chi.whang@gmail.com

**미네소타 MINNESOTA** (Jan~Dec)

회장 차재호(농공학 84) T: (651)769-5343  
jaehocha@yahoo.com  
차기 회장 용정식(농화학 86) T: (610)952-3673  
jyong@umn.edu

**뉴잉글랜드 MA/RI/NH/ME/VT** (Jul~Jun)

회장 임영호(공대 72) 978-490-0118  
Ynghlim@yahoo.com

**뉴욕 NY/NJ** (July~Jun)

회장 금영천(약대 72) T: (718)791-4397  
yckum52@gmail.com  
차기 회장 김정필(공대 71) T: (201)965-7759  
jaypkim@keiusa.com

**워싱턴 DC DC/MD/VA/WV** (Jan~D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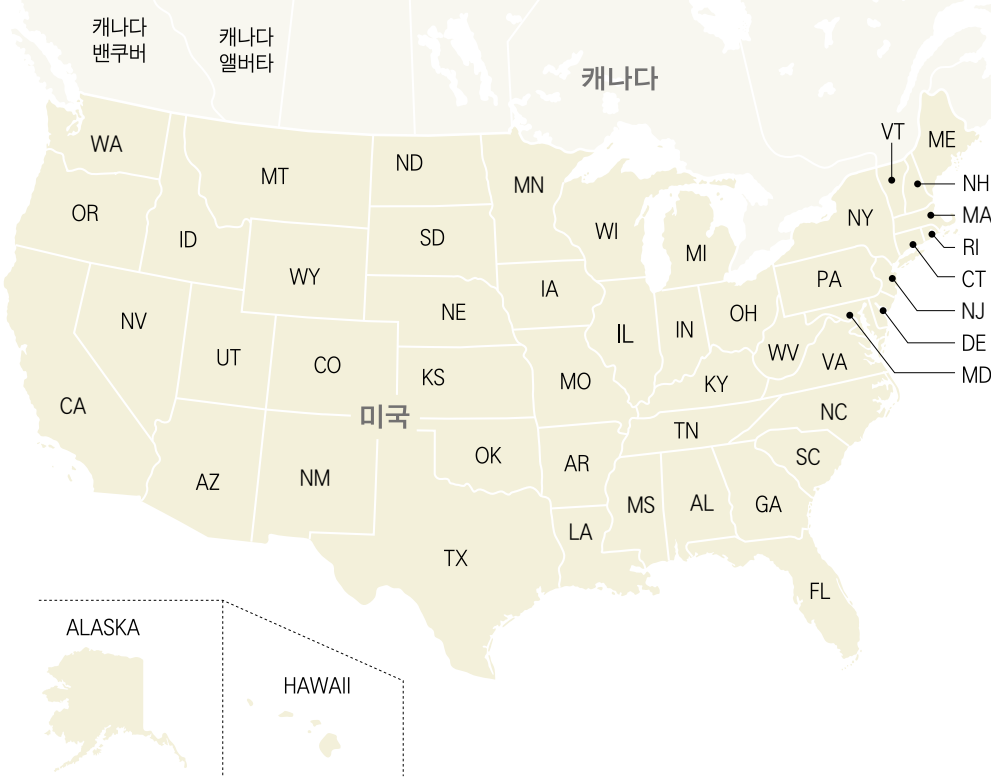
회장 박상근(법대 75) T: (703)447-8175  
sangkuenpark@gmail.com  
차기 회장 정세근(자연대 82) T: (703)785-8467  
saekewn@gmail.com

**커네티컷 CT**

박용회(상대 83) T: (203)767-8187  
yhptax@gmail.com

**필라델피아 PA/DE/S.NJ** (Jul~Jun)

회장 이종태(사대 71) T: (267)266-2881  
leejt1530@gmail.com



**애리조나 ARIZONA**

정인주(농대 82) T: (602)510-9196  
snuarizona@gmail.com

**유타 UTAH** (Jan~Dec)

김한섭(공대 93) T: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조지아 GA/AL/MS** (Jan~Dec)

배혜영(음대 79) T: (678)943-9043  
lhybae@gmail.com

**캐롤리나 SC/NC/KY** (Jan~Dec)

정신호(자연대 78) T: (417)277-1636  
sinho.jung@duke.edu

**휴스턴 HOUSTON** (Jan~Dec)

구자동(상대 70) T: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하틀랜드 IA/MO/KS/NE/AR/OK** (Jan~Dec)

이치현(약대 77) T: (913)814-9452  
leech@umkc.edu

**플로리다 FLORIDA** (Jan~Dec)

최희덕(사대 68) T: (973)610-5857  
heeduklee@gmail.com

**테네시 TENNESSEE** (Jan~Dec)

김상호(공대 86) T: (856)386-1094  
kimsh@ornl.gov

양수진(간호대 80)  
Nurse Practitioner

# Golden Springs Medical Clinic



(626) 986-4899

18773 Colima Rd.,  
Rowland Heights, CA 91748

미주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서예반 모집

지도: 정인환(법대 54)

일시: 매주 화 10AM~12PM

장소: 작가의 집 동리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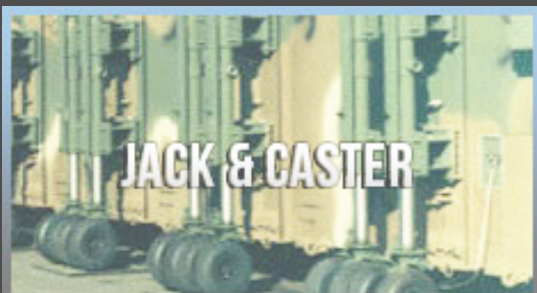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이명선(상대 58)

# HOUSTON FEARLESS 76



## A Division of HF Group

Houston Fearless provides products and services to the Department of Defense supporting multiple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Intelligence (ISR) ground support platforms and applications. Our field-proven products and personnel are supporting activities at flight test facilities, forward operating locations, and military bases around the world. Houston Fearless is the recognized leader in sustaining U-2 ground support systems. Today, Houston Fearless continues to provide outstanding support to the U-2 program and is leaning forward to provide superior systems in support of fielded ISR platforms such as Project Liberty, Gorgon Stare, Predator, and Blue Devil. As new systems have been fielded, Houston Fearless has expanded and improved on our extensive line of products and services to properly support these systems. Houston Fearless is minority owned small business and a registered DoD contractor. Our facilities and highly skilled workforce are located on Beale Air Force Base in Northern California. In its celebrated 30 year relationship with the Air Force, Houston Fearless has become a trusted and respected partner to the Department of Defense community and has been instrumental to mission success in the past and will continue to play this role in the future.

310-605-0755

[www.hf76.com](http://www.hf76.com)

203 W Artesia Blvd, Compton, CA 90220